

제56회 학위수여식 오늘 거행

총 2022명 학위 받아... 학사 1750명·석사 232명·박사 40명



제56회 학위수여식이 20일 오전에 아라캠퍼스 아라무스홀과 사라캠퍼스 미래창조관에서 각각 거행된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학사 1750명, 석사 232명, 박사 40명 등 총 2022명의 졸업생을 배출한다.

총장상 및 표창, 학장상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장상(사진) △인문대학 양미래(철학과) △법정대학 고예슬(정치외교학과) △경상대학 김관필(경영정보학과) △사범대학 이정환(생물교육전공) △생명자원과학대학 김수실(분자생명공학전공) △해양과학대학 김경현(토목환경공학전공) △자연과학대학 이가영(의류학과) △공과대학 김홍재(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수의과대학 빙소진(수의학

과) △예술학부 김치연(한국화전공) △교육대학 전진수(초등교육과 컴퓨터교육) △간호대학 김민정(간호학과) △학생자치기구 공로 학생 총장표창상 △법정대학 김민석(정치외교학과), △경상대학 박병준(경영학과), 홍영기(경영학과), △생명자원과학대학 현용탁(원예환경전공), △자연과학대학 양혜경(가정관리학과) 총 5명

▲학장상 △인문대학 임아름(국어국문학과), 김민정(영어영문학과), 김은희(독일학과), 강익진(일어일본학과), 김민형(중어중문학과), 김지현(사학과), 강기태(사회학과), 강동민(철학과) △법정대학 장혜연(법학

전공), 김미진(행정학과), 김윤규(정치외교학과), 임상일(인문홍보학과), 윤재두(법학부·야), 고아라(행정학과·야) △경상대학 강규연(경영학과), 고유미(관광경영학과), 김정미(회계학과), 현승환(무역학과), 현승학(경제학과), 허지원(관광개발학과), 송영현(경영정보학과), 허승현(경영학과·야), 박주영(회계학과·야), 이상엽(관광경영학과·야) △사범대학 강창우(국어교육과), 김지은(영어교육과), 강동혁(일반사회전공), 박보람(지리교육전공), 강민지(윤리교육과), 김한솔(수학교육과), 김진영(물리교육전공), 최다현(생물교육전공), 김중동(컴퓨터교육과) △생명자원과학대학 김경남(식물자원환경전공), 고성우(원예환경전

공), 심현준(응용생명공학전공), 고동희(분자생명공학전공), 김승호(동물자원과학전공), 김보성(산업응용경제학과) △해양과학대학 임한솔(해양생산과학전공), 신미루(토목환경공학전공), 이동현(해양산업공학전공) △자연과학대학 김현우(물리학과), 변유경(생물학과), 오한솔(화학), 홍은희(식품영양학과), 김재우(수학과), 강동훈(전산통계학과), 석재경(가정관리학과), 현혜림(의류학과), 김태홍(체육과학전공) △공과대학 강민지(식품생명공학과), 변창훈(기계공학전공), 신소운(메카트로닉스전공), 문기철(통신공학과), 변영찬(에너지공학과), 김효주(컴퓨터공학과), 전해동(전자공학과), 고지한(전기공학과), 이세라(생명화학공학과), 최수경(건축공학전공), 강은비(건축학전공), 김진만(멀티미디어전공), 이누리(문화조형디자인전공), △교육대학 김래영(윤리교육전공), 김민경(국어교육전공), 이지미(수학교육전공), 강연정(사회교육전공), 강운아(과학교육전공), 이희혁(체육교육전공), 김영지(음악교육전공), 심명희(미술교육전공), 심효빈(실과교육전공), 양동주(교육학전공), 김은지(영어교육전공), 박지연(컴퓨터교육전공), △수의과대학 황대경(수의학과) △간호대학 정수연(간호학과), △예술학부 김은영(서양화전공), 박소현(관·현악전공) 등 총 80명 김명지 기자



학사모와 함께 기분은 저 하늘 위로 지난 16일 행정대학원(원장 고영철 교수) 고급관리자과정을 마친 수료생들이 학사모를 하늘 위로 던져 올려 기뻐하고 있다. 김동현 수습기자

학부 등록금 5.7% 인하

제주대(총장 허향진)가 올해 학부 등록금을 5.7% 인하한다. 다만 교육대학과 대학원은 동결하기로 했다.

제주대는 지난달 24일 등록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종훈 학생처장)와 기성회이사회(김남식 기성회장)를 거쳐 올해 등록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부생 등록금은 △인문·사회계열은 328만2000원(5.7% 인하) △이학·체육계열은 402만4000원(5.7% 인하) △공학·예능계열은 437만2000원(6.2% 인하) △수의예과는 430만원(6.0% 인하) △의학과와 수의학과는 564만3000원(5.7% 인하)이다. 또한 학부 입학도 종전 17만8000원에서 16만8000원으로 인하했다. 대학원과 교육대학은 동결하기로 했다.

김종훈 학생처장은 "이번 등록금 인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경

교육대·대학원은 동결 학생예산은 그대로 유지 실질혜택 확대 의견도

추진하고 국책사업을 유지하는데 힘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은 등록금 5.7% 인하 또는 동결 소식에 반가움을 표하고 있다. 김교민(해양산업경찰 4)씨는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용역, 막일을 하곤 했다"며 "이번 등록금 인하로 나를 포함해 학비 때문에 걱정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등록금 인하 또는 동결 소식에 아쉬움을 표한 학생도 있었다. 안주일(사회교육 3)씨는 "금액으로 따지자면 20만원 가량 줄어드는 셈인데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국가장학금의 수혜비율을 더욱 더 늘려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것도 대학 본부에서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명지 기자

제주대 국가고객만족도 전국 4년제 대학 중 6위

제주대학교(총장 허향진)가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전국 4년제 대학 중 6위를 차지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지난해 국가고객만족도 순위와 점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대는 70점을 얻어 성균관대(76점), 서울대(72점), 서강대(71점), 경희대(71점), 강원대(70점)에 이어 총순위 기준으로 여섯 번째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사는 재학생 2380명을 대상으로 1대1 개별 면접으로 이뤄졌다. 국가고객만족조사 모델 구성요소는 △고객만족도 △고객대수준 △고객인지품질 △고객인지가치 △고객 불평률 △고객충성도 등 6가지다.

제주대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현을 위해 해마다 대학생활만족도, 학생들의 학습과정 분석, 행정서비스 만족도, 수업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왔다.

특히 그 결과를 분석, 모자란 부분은 해당 부서를 통해 계속 개선해왔다. 기초교양교육 강화,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교양교과목 운영, 자기주도적 학습지원 강화, 외국대학 파견 교류학생 확대, 취업지원 및 산학협력 강화, 장학금 지원 확충 등이 그 결과물이라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

제주대는 쾌적한 학습지원 환경 및 연구 환경 조성과 고객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지난 1998년부터 국내 60개 업종 265개 기업(관)의 고객만족도를 조사해 그 결과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관광·레저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 직원 일동 -

▶ **사업기간:** 2009. 06 ~ 2012. 02

▶ **참여학과(전공)**
 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관광개발학과, 무역학과, 컴퓨터공학과, 경영정보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식물자원환경전공,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문화조형디자인전공, 레저스포츠전공

▶ **참여학생:** 총 2,068명 *1차년도(567명), 2차년도(729명), 3차년도(772명)

- ▶ 한국MICE산업전 'Seoul MICE Youth Challenge' 한국대표로 참가, "1st, Gold-prize" 수상
- ▶ 국내 최초 세계 7대 제품 디자인 공모전 전체 석권
- ▶ '한국방문의 해' 미소 국가대표 2기 활동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 ▶ 컨벤션기획사 2급 자격증 취득 : 센터 참여학생 및 졸업생 8명
- ▶ 관광·레저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장 "201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 2차년도 전국 인재양성센터 연차평가 결과 「조직운영·홍보분야」 최우수 평가기관 선정
- ▶ 제주지역 취업률향상 프로그램 우수등급 선정: 3억4천9백만원 인센티브 지원금 수여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3층 8320호 / <http://mice.jejunu.ac.kr>

사설

졸업생들에게 드리는 조언

제56회 학위수여식을 맞이하였다. 지금 이 시대 대학 졸업의 의미는 복잡하다. 간단히 축하한다는 말로 마음을 전하기가 어렵다.

미안하다는 말도 유행이다. 미안하다. 청년 세대. 청년 실업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등록금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비정규 아르바이트 일자리로 몰아대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더더구나 앞으로 다가올 환경처리 부담, 사회복지 부담을 떠넘기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미안하다는 것이다. 이런 위로가 전하려는 속 뜻을 펴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위로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위로에 내포되어 있는 반성, 그것에 기초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한다면 위로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위로와 반성은 쉬울 수 있지만 대안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와 경제적 운용구조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여기를 손대면 저쪽에 문제가 생기거나, 저쪽을 고치면 또 이쪽에 혼란이 생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위로와 반성을 넘어 대안으로 나아가는 것은 쉽게 포기되고 만다.

지금 이 시대, 청년 세대들에게 해주어야 할 진정

한 조언은 미안하다는 위로가 아니다.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는 격려다.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줄 타인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청년 세대가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청년 세대 스스로 자신의 힘을 깨닫는 것이 급선무다. 청년 세대는 결코 취약하지 않다. 정치적 의미에서나 지식 정보적 의미에서나 청년 세대는 막강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성장, 교육과정에서 세계화, 정보화의 충격을 흡수해 왔기 때문이다.

요즘은 귀한 걸 잊는 일도 없지 않지만, 학사(學士)라는 '학위'를 수여하는 것은 여러분을 '지식인'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대학을 졸업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지식인으로서 여러분이 역사의 주체, 시대의 주인으로 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부해서는 안 된다. 냉소해서도 안 된다. '지식인'이라는 칭호는 사실 고통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그 책임을 거부하는 것은 대학 과정의 시간과 비용,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대안을 제기하고 실천해야 한다.

총장 직선제, 과연 선진화 방안일까?

총장직선제 폐지를 담은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과 2012학년도 대학 평가지표가 발표되면서 대학에 회오리가 몰아칠 전망이다. 당장 우리대학도 단과대학별 설명회를 열고 교직원 찬반투표를 거쳐 3월 말까지 직선제 폐지를 담은 학칙개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교과부의 주장대로 과연 총장직선제 폐지가 국립대 선진화를 가져올지는 따져볼 일이다. 선진화 방안 자체에 문제가 많아서다.

첫째, 심각한 정도로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25조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은 '대학의 장 임명추천위원회' (이하 총추위)를 구성해 위원회에서 직접 뽑거나 아니면 '대학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의해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선택적 자율권한을 두고 교과부는 직선제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폐지할 수 있다고 역지를 부린다. 같은 논리라면 교과부가 제안한 방안(총추위에서 선출) 또한 의무가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도 교과부는 행정적 지원 없이 무조건 폐지를 사실상 자신들의 방안을 무조건 수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는 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과부는 총추위에 외부 인사를 대폭 참여시키도록 요구한다. 그런데 교육공무원법에는 '당해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만 총추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교과부는 총추위 산하에 별도의 선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야말로 옛장수 마음대로다. 관련법의 개정 없이 직선제 폐지를 밀어붙이다보니 억지총장의 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둘째, 선진화를 보장할 근거가 없다. 교과부는 선진화 방안에서 총장직선제의 폐단으로 '학맥, 인맥, 지연 등 파벌 형성', '능력 위주의 보직임명 한계(는

공형상)' 등을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선진화 방안이 이런 폐단을 근절시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교과부의 제안대로 총추위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경우 오히려 현재의 폐단은 그대로 상존한 채 또 다른 폐단만 불러오게 될 것이다. 예컨대 외부 인사 선출 과정에 참여시킬 경우 후보자들은 지역은 물론 중앙의 정관계 인사에게 줄을 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토록 취지와는 달리 엉뚱한 부작용을 불러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학장임명제만 해도 그렇다. 선거는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총장 지명임명제로 전환했지만 오히려 논공행상의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 교과부도 이를 인정하여 이제는 임명제를 공모제로 바꾸되 외부인사에게까지 문호를 개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산학협력 촉진이 표면적 이유이지만 또 다른 부작용이 예상된다. 군소 사립대학들이 교과부 관료 출신 인사를 영입하려 애쓰는 현실에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2월이 되어서야 선진화 방안과 평가지표를 공식 발표하면서 교과부는 3월말까지 대학 스스로 총장직선제 폐지를 담은 학칙개정을 마무리 짓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마도 대학을 교과부 명령 하나면 즉각 행동에 옮기는 하급부대로 여기는 모양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선진화 방안에서 근거자료로 제시한 각종 통계수치나 사례들이 객관성이 없고 설득력도 약하다. 논문으로 치면 게재불가 수준이고 평가방법으로 치면 수업거부급이다. 그런데도 당장 교육역량강화사업비에 목매인 대학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선진화방안을 수용하느냐 마느냐의 딜레마에 처해 있다. 정말 대학이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부속시설 탐방 <15> 전기에너지연구소

제주실정 맞는 연구로 지역사회 기여

최근 전기 활용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 기존에 전기가 원료였던 제품에서 벗어나 원료가 다른 자동차, 가스레인지, 온수기 등 여러 가지들 연구 및 개발하고 있다. 또 현재 많이 사용되는 원자력과 화력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로 전기 생산하는 방안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추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기에 대한 다채로운 연구를 하는 곳이 있다. 바로 전기에너지연구소(센터장 김세호 교수)이다.

2008년 8월에 공과대학에 설립된 전기에너지연구소는 제주지역의 전기에너지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발전, 송전, 배전을 다 해 전기에너지를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된다. 이로 인해 에너지 절감 및 이용을 합리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적합지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제주지역은 에너지 현



전기에너지연구소에서 연구참여 교수들이 모여 제주지역 에너지 효율적 사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전기에너지연구소 제공>

안을 충분히 수립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에너지연구소가 설립됐다. 전기에너지연구소는 우리가 일

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이공계 교수와 학생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행정학과 등 다양한 학과의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한다. 한 분야의 사고에 닫혀있지 않고 전기

에너지에 관련된 다양한 생각들을 들으면서 이상적인 전기에너지 활용 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이 센터는 또한 제주지역의 전기에너지관리를 위해 한국전력공사, 중부발전 등 국내다양한 기업들과 협력해 제주지역에 맞는 전기에너지 보급과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펼치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 방안 및 풍력발전 증대방안, 신재생에너지시설의 가동률 제고 및 운영 최적화 방안 등 여러 조사를 했다. 이 연구들은 제주지역의 전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안을 워크숍이나 연구 발표를 통해 관련 기업들에게 제시해 제주지역의 여러 전기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이번 해에는 제주지역의 에너지 계획 수립방안을 세워 제주 지역의 전기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세호(전기공학과) 센터장은 "전기에너지와 관련한 여러 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며 "연구원들과 많은 연구를 진행해서 제주지역 전기사업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수습기자

'창의캠프' 교육기부 나서

실용정보과학사업단 10개교 50여명 대상

교육대학 실용정보과학사업단(단장 박남제 교수)이 지난 11일 교육대학 교사교육센터에서 추자초, 삼성초 등 10개 초등학교 50여명을 대상으로 '실용정보과학 창의교육 데이캠프'를 열었다.

교육기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날 프로그램은 오전 9시부터 9시 30분까지 7개의 융합과학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로봇 조립 및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IT융합 로봇활용교육 △현대판 테우 모형 만들기 등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시키는 융합교육 활동수업 △놀이로 배우는 암호교육 등 창의 수학적 체험 활동 △인플러그드 컴퓨터과학교육 실습(컴퓨터를 통한 실용 컴퓨터 교육이 아닌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등을 통한 논리) △나만의 스피커 만들기 등 STEAM(융합인재교육) 과학 활용교육 체험 등 프로그램 등이다.

참가 학생들은 새롭게 배우는 다



캠프생이 '나만의 스피커'를 만들어 보는 실습을 하고 있다. <실용정보과학사업단 제공>

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어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남제(실용정보과학사업단장, 컴퓨터교육전공) 교수는 "이번 행사는 한마디로 전문화된 컴퓨터교육 캠프"라며 "교육기부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선진 실용정보 과학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과학 힘 등 프로그램 등이다."

김명지 기자

중앙도서관 새로 짓는다

공간 부족 시설 노후화로 교과부 신규사업 선정 2016년까지 완공 예정

중앙도서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신규 사업으로 선정돼 신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공사는 매년 4-5만권씩 늘어난 장서의 수납공간부족과 시설 등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설계용역 5억원 등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135억원이 신축사업에 들어간다. 또한 시설의 안전도 도마위에 올라왔다. 김선동(서울 도봉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도서관은 최대 적정소장 책 수의 66%를 초과해 바닥에 균열이 있고 증축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는 등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았다.

중앙도서관 수납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여태껏 특별한 대책 없이 장서수를 늘려만 왔기

때문에 도서관이 수용할 수 있는 장서수가 한계에 다다랐고, 건물이 과도한 하중을 받고 있어 조속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신축공사는 제2도서관 앞에 지하층 지상4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중앙도서관 내부에는 자료실, 멀티미디어실, 그룹스터디 룸 등의 공간이 마련된다.

강권익(중앙도서관) 자료운영팀장은 "현 도서관이 노후화 문제가 있었다"며 "중앙도서관이 신축되면 학생들이 보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생들은 규모가 큰 도서관보다 실제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들어서길 바라고 있다. 김종찬(철학 3)씨는 "중앙도서관이 시험 기간에는 열람실이 부족하다"며 "실용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수습기자

5W2H | 5W1H + Humanism |
바른 목소리를 내는 신문, 사람을 향하는 신문

“ 제주대신문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

제주대신문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에 확성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항상 당신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주대신문 편집국 : 064-754-2277
 제주대신문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jnu.press
 제주대미디어 누리집 : http://news.jejunu.ac.kr/com/jb.html
 제주대신문 김명지 기자 : 010-7931-8228

제주대신문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주 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 실시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주말교육가능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기성회비 반환소송’ 제주에도 확산



지난 16일 낮 12시 학생회관 입구에서 '희망학생회'와 '제주민주인권대'가 제주대학교 기성회비 부당이득 반환청구 선포기자회견을 열었다. 신동원(중어중문 3)씨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본부에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는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총학생회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준호(법학 4) 총학생회장은 “중앙운영회의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제주대 학생으로서 의견을 밝힐 자유는 있으나 제 3자가 보기에 인준을 받지 못한 모임의 의견이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의 의견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정 회장은 “희망학생회가 총학생회에는 한마디 의견 표출도 하지 않았다”며 “총학생회와 얘기도 하지 않고 독자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희망학생회 등은 현재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중이라는 총학생회의 빠른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총학이 만약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론이 난다면, 지금의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타 임팩을 놓치지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움직임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학생회 등은 추후에 총학이 기성회비 반환에 참여할 경우 함께 할 뜻이 있다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희망학생회’ 등 기자회견 “기성회비 부적절한 사용 인정하고 배상해라”
학생회관 사용 불허 유감
학생자치기구 “한마디 말도 없이 회견 독자적인 행동 아쉬워”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주제와 학교 및 학생들간의 갈등도 빚어졌다. 희망학생회 등은 당초 학생회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으나 동아리 연합회의 불허로 학생회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동아리연합회는 학생회관 내에서 중립적이지 못한 행사를 여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홍성석(동아리연합회) 회장은 “학생회관에서 이같은 정치적인 행사가 열려나 성명서 발표 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모든 방법을 통해 제주대학교 기성회비 편법사용에 대해 문제를

이처럼 일부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본부에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는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총학생회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준호(법학 4) 총학생회장은 “중앙운영회의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제주대 학생으로서 의견을 밝힐 자유는 있으나 제 3자가 보기에 인준을 받지 못한 모임의 의견이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의 의견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정 회장은 “희망학생회가 총학생회에는 한마디 의견 표출도 하지 않았다”며 “총학생회와 얘기도 하지 않고 독자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희망학생회 등은 현재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중이라는 총학생회의 빠른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총학이 만약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론이 난다면, 지금의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타 임팩을 놓치지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움직임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학생회 등은 추후에 총학이 기성회비 반환에 참여할 경우 함께 할 뜻이 있다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명지 기자

학위수여식사

“끝없는 도전으로 세계를 내 품에...”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졸업과,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울인 노력과 열정에, 제주대학교를 대표하여,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우리 졸업생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부모님과 가족 여러분, 정성껏 지도해주신 교수님들,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박사 40명, 석사 232명, 학사 1750명 등 모두 2022명의 제주대학교 새로운 졸업생 동문을 배출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특히 개교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올해, 여러분들의 장도를 축하하게 돼, 감회가 남다릅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의 자리에 서십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가정과 학교의 보호막에서 벗어나 자신과 가정을 책임지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새로운 인생여정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변화의 물결을 헤치고 당당히 도전해야 할 졸업생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과 도전이 닥칠지라도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과 도전을 반드시 기회와 꿈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여러분 앞을 막아서더라도 자신이 꿈꾸는 가능성을 믿고 다시금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믿는 꿈을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자신의 삶으로 실현하십시오. 제주대학교에서의 초심을 기억하고, 자신의 잠재성을 믿는 순간 미래의 희망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모교인 제주대학교는 개교 이래 가장 중요한 변화의 길을 갈 것입니다.

제주대학교는 앞으로 ‘글로벌 시대의 뉴리더, 혁신하는 명품대학’ 비전을 실현해 나갈으로써 ‘21세기 대학 패러다임’을 선도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 세계로부터 인재를 받아들이고 길러낸 인재를 세계로 내 보낼 수 있는 대학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가슴 따뜻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지식·기술 개발로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대학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의 실현은 동문들에게는 명문 출신으로서의 자긍심을, 재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심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과 국가에는 시대를 선도하는 지식과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우수한 인재를 공급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주대학교 출신임을 자랑스리게 여길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허향진 총장

우리가 전제로만 알았던 빌게이츠(MS), 빌조이(SUN), 비틀즈 등도 정상에 오르기 이전에 이런 과정을 통해 진정한 ‘아웃라이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날에 다가올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된 세계에 적합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변화하는 종만이 종족보존이 이루어졌다는 ‘다윈의 명제’는 오늘날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통용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생존방식을 끊임없이 학습하고 자기 자신을 끝없이 변화시켜야만 새로운 성취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겸손함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치열한 경쟁사회일수록 자신을 낮추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할 때 진정한 자신의 가치가 빛날 것입니다.

소통하고 협력하는 인재는 언제나 환영받습니다. 더 많이 듣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돕는 인재말로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겪어 온 것보다도 훨씬 어려운 도전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아라벌에서 언마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과 혁신정신으로 가슴이 따뜻한 인성과 지식을 바탕으로 더 창의적이고 더 영광스러운 미래를 창조하기를 기대합니다.

새롭게 비상하는 모교 제주대학교와 지역과 국가를 이끌고 있는 자랑스러운 선배들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미래에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네트워크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문들끼리 상호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제주대학교가 키운 인재는 분명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명문대학 건설을 위한 모교의 대장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십시오. 모교는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학위 취득을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2월 20일

총장 허향진

제주대 누리집 연이틀 ‘깜빡 깜빡’

<학교 홈페이지>

공지없이 점검 이뤄져 일부 이용자들 당황 공신력 저하 우려도



제주대학교 홈페이지가 지난 10일 오후 10시부터 11시간 동안 서버 테스트를 실시한 가운데 공지없이 이뤄져 이용자들 불편을 겪었다.

제주대 누리집(홈페이지)이 연이틀 접속이 차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0일 오후 10시경부터 반나절 가량 제주대 홈페이지 접속이 마비됐다. 또한 다음날 오전 12시 57분경 일시적으로 접속됐다가 이내 연결이 끊겼다. 다시 정상적으로 복구된 것은 다음날 오전 9시 30분경. 결국 반나절 가량 사용자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못했다.

김경희(정보통신원) 전산사무관은 서버 다운과 관련해 “정보통신원은 서버 이설 작업 때문에 일시적으

로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원에 따르면 이번 서버 이설은 교육대학의 남은 서버를 활용하기 위해 외부업체에서 이를 가지고 메인서버를 테스트 하느라 접속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정보통신원이 아닌 외부업체에서 담당했다.

정보통신원 관계자는 “외부업체가 야간에 제주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번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적은 야간에 테스트하려다 보니 하루에 다 하지 못하고 며칠로 나눠 서버를 점검해 왔다. 외부업체가 수시로 서버를 점검하다보

니 언제 서버를 점검하겠다는 일정을 정보통신원에 알리는 절차까지 생략했던 것이다.

아무런 사전 공지도 없이 이뤄진 데다 반나절가량 이어져 학생들은 이유도 모른 채 학교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없었다. 게다가 사후 공지도 없어 학생들은 불만을 토했다.

김상희(식물자원환경전공 1)씨는 “제주대 홈페이지가 공지도 없이 갑자기 홈페이지 점검을 이유로 닫는다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당혹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물론 국립대학으로서의 공신력 저하까지 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다음부터 점검을 할 때는 일정기간 전부터 홈페이지에 공고를 띄워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명지 기자

“협력·소통 통해 혁신해야”

허 총장 연찬회서 밝혀 부서 업무보고·계획 발표



지난 9일 아라뮤즈홀에서 제주대학교 연찬회가 열려 학교 구성원들이 참가한 부서별 발표를 듣고 있다. <홍보협력팀 제공>

2011학년도 제주대 연찬회가 지난 9일 아라뮤즈홀에서 열렸다. 연찬회는 지난해 대학이 추진해 온 일들에 대해 평가하고 올해의 계획을 다듬어 대학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허향진 총장은 연찬회를 통해 “올해 우리 대학이 풀어나가야 할 당면 과제는 2단계 국립대학의 선진화 방안”이라며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대학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학 발전이라는 과제 달성에 있어 저와 여러분은 동반자”라며 “협력과 소통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사는 각 부서 업무보고에 이은 질의·응답과 총장 총평 순으로 진행됐다.

제주대는 2011학년도 주요 성과로 △재학생 1만명 미만 대학 중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 정부지원액 전국 1위 △한국생산기술본부가 발표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4년제 대학 중 6위 △21개국 127개 외국대학과의 교류, 외국인 유학생 50% 증가, 외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6배 증가 등 국제위상 업그레이드를 꼽았다.

또 △전국대학이러닝 지원센터 중앙본부 유치 △스마트 캠퍼스 구

축 △국립대 최초 ‘강의 중간평가제’ 도입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졸업자적성인정기준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2012학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인재양성관 건립 △수업생들의 해외취업지원 구축 △수업 유학생 유치 및 외국인 편입제도 확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중요시설 신축 등이 제시됐다.

강민성 수습기자

2012학년도 정시합격자 1866명 발표 추가합격자 발표는 오는 22일까지

제주대학교 2012학년도 정시 나·다군 합격자 1866명의 명단이 지난 3일 발표됐다.

제주대는 이날 오후 4시 정시 나군 합격자 1049명, 다군 합격자 817명과 함께 예비후보자를 확정 발표했다.

고교 재학생의 합격률은 82.9%로 지난해 86.1%보다 3.2% 포인트 낮아져 상대적으로 재수생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자 성별로는 남자 46.8%(874명), 여자 53.2%(992명)로 여학생 합격률이 6.4% 높았다. 모집단위별 미등록 결원에 대한 추가합격자 선발은 예비후보자 순위대로 선발한다.

한편 추가합격자 발표는 오는 22일까지 개별 전화통보 및 입학안내 누리집(홈페이지, http://ibsi.jejunu.ac.kr)을 통해 이뤄진다. 강민성 수습기자

한국생산기술연과 협약

제주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나경환)과 지난달 27일 ‘학술·연구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고급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체결된 협약에서 양 기관은 △과학기술 분야 △중소기업 기술지원 △기타 실무협의를 위한 연구 및 개발 사업 발굴을 통한 ‘학·연 파트너

십’ 구축에 대한 내용들을 협의했다. 특히 양측은 연구협력과 교육을 위한 인력교류, 제주대 대학원과정 학생의 생기원 학생 연구원 활용, 학술 정보교류를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강민성 수습기자

통합교양강의동 8월 완공

20억원 들여 지상 2층 규모 통합교양강의동이 지난달 18일 착공식을 가지고 공사에 착수했다. 제2 운동장과 해양과학대학 4호관 사이에 들어설 강의동은 오는 8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지는내 과제도서실, 회의실 등 각종 시설들을 갖추게 된다.

대학 본부는 통합교양강의동에 예정대로 완공되면 교수와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환경 서비스 제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현 수습기자



오는 8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되는 통합교양강의동의 건물 투시도. <홍보협력팀 제공>

한국어과정 수료식 아라뮤즈홀서 열려

“2011년 가을학기 한국어과정 수료식”이 지난 1일 아라뮤즈홀에서 열렸다. 이번 한국어과정 수료생 105명은 중국, 일본, 네덜란드, 몽골, 미국, 대만, 캐나다, 인도네시아로 8개 나라 출신이다.

수료생들은 400시간 수업 중 80% 이상을 출석하고, 필기·말하기 등의 시험에서 평균 70점 이상을 얻어 수료증을 받았으며, 우수 수료생 49명에게는 총 59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수료생들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거쳐 대학 및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급수가 더 높은 한국어과정 등에 입학하게 된다. 김소영 기자

박사 명단

중어중문학

문홍 문학박사
학위논문명
漢語口語習用語 研究
-어법, 의미, 화용을 중심으로-

법학

강용암 법학박사
학위논문명
집합건물 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정두진 법학박사
학위논문명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 유치권을
둘러싼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영진 법학박사
학위논문명
소비자계약상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행정학

현성옥 행정학박사
학위논문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책임성
강화모형 연구

강경민 행정학박사
학위논문명
공유자원의 준사유화
과정에 대한 연구

김경범 행정학박사
학위논문명
교통정책 순응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정치학

강병철 정치학박사
학위논문명
동북아 다자간안보협의체
구상과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 '헬싱키 프로세스'의 함의와
'제주 프로세스'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경영학

강연심 경영학박사
학위논문명
비주일 머천다이징, 관계품질,
충성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소비자 인지스타일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성훈 경영학박사
학위논문명
LMX와 직무수행의 관계에 대한
매개 및 조절효과 검증
- 자아개념 및 부하저항의 매개효과와
임파워링 리더행동의 조절효과 -

이중현 경영학박사
학위논문명
서비스제공자의 감성지능,
사회적 교환, 고객자사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내부고객과 외부고객의 관점으로-

관광경영학

이영란 관광학박사
학위논문명
외식서비스 회복공정성, 만족과
충성도간의 구조적 관계
- 전환장벽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교육학

손태주 교육학 박사

학위논문명
청소년의 애착과 학교생활적응
관계에서 도음추구행동의 경로모형

농학

윤창완 농학박사
학위논문명
제주지역 농작물의 재배 변천과
농경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최경산 농학박사
학위논문명
갑골원에서 네눈썹가지나방의 생태 연구
섭식양상, 성페로몬 조성 및 개체군 모형

강소영 농학박사
학위논문명
제주에서 근권세균을 이용한
주요 식물병의 방제

원예학

김봉찬 농학박사
학위논문명
제주지역에서 에키네시아
주요 품종의 생육특성 연구

송인관 농학박사
학위논문명
제주지역에서 차나무(Camellia Sinensis L.)
품종 및 수확기에 따른 신초의
품질 및 무기성분 특성

허태현 농학박사
학위논문명
발전소 폐열원 열펌프 시스템의
시설원에 적용

생명공학

강옥득 이학박사
학위논문명
Study on the Exercise
Physiology of Jeju Crossbred
Horses and the Effect of
Riding for the Disabled

김성삼 이학박사
학위논문명
Study on Dietary
Essential Amino Acid
Requirements by
Dipeptides for Marine Fishes

김주상 이학박사
학위논문명
Development of loop-mediated
isothermal amplification technique
and trivalent vaccine for olive
flounder against streptococcus

해양생명과학

강성명 이학박사
학위논문명
Molecular Docking Studies of
Phlorotannins from Brown
Algae with Biological Activities

고석천 이학박사
학위논문명
Improvement of Metabolic
Syndrome of a Novel Peptide
Purified from styela clava

지구해양학

김인환 이학박사
학위논문명
에센셜 아로마오일의 세포독성과
3종의 아류병원성 세균 항균활성에
미치는 영향

해양학

김태정 이학박사
학위논문명

제주도 주변 대륙붕 퇴적물의
지화학적 조성과 기원지 연구

토목해양공학

김정훈 공학박사
학위논문명
도로 성토로 인한 연약지반의
측반유동에 관한 연구

생명과학

고영민 이학박사
학위논문명
제주도산 북방산개구리의
생활사에 관한 연구

강성일 이학박사
학위논문명
Anti-obesity Effects of
Petalonia binghamiae, Citrus sunki,
and Sasa quelpaertensis

화학

고려경 이학박사
학위논문명
Chemical Constituents and
Cosmetics-Related Activities
from Plants in Jeju Island

가정관리학

문정은 이학박사
학위논문명
免税店 販賣空間의 視覺的
空間構造 및 디자인 選好에 관한 研究

의류학

고순희 이학박사
학위논문명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 연구

체육학

김진현 체육학박사
학위논문명
여자축구선수의 크로스킥팅
동작에서 사전방향 예측이부가
슬관절 부상에 미치는
운동역학적 요인분석

의학

김영미 의학박사
학위논문명
Cause and Cure for unusual p22phox
deficient Chronic Granulomatous
Disease on Jeju Island : (Therapeutic
vector design and New mechanism
for superoxide mediated EMT)

박미경 의학박사
학위논문명
Effects of Oxidative Stress
Induced by Silver
Nanoparticles on Cell Death

수의학

강상철 수의학박사
학위논문명
제주도 내 Porcine Circovirus
Associated Disease의
발생상황 조사 및
병리학적 연구

양희경 수의학박사
학위논문명
Development of Anti-cancer
Therapeutic Modalities
Overcoming Radio-resistance
in Metastatic Brain Tumors

에너지응용시스템물리학

고호정 이학박사
학위논문명
에르븀이 첨가된 나노결정형
실리콘박막의 제조공정에 관한 연구

에너지응용시스템에너지공학

이보안 공학박사
학위논문명
Development of a Computational
Analysis System for Electrical
Impedance Tomography

식품공학

김승건 공학박사
학위논문명
침지형 평막결합 연속회분식
반응기를 이용한 페수처리

식사 명단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
오경임 권미소

영어영문학
김재현 이영민

일어일문학
오보람

중어중문학
김선미 양성의

사학
강윤희 강영삼

사회학
젠니디 타드리(Jenny D. Tadle) 윤명희

철학
김현수

법학
성덕근

정치외교학
강영미

언론홍보학
원이범

경영학
바트바야 흥순덕 진영호 양래진 허천림 고영
심

관광경영학
구성혜 정유림 윤정정 황영환 이의희 예방주

회계학
강혜림

무역학
왕산 장위위 민영 조선

경제학
강연실

농학
강성혁 유충훈 이영돈

농업경제학
김민형

생명공학
정옥철 노은형 박민지 노은지 김보화 이비
우진규

해양생명과학
프라사드 김준상 차지훈 이지혁 강창희 고
창익 김병훈 김승민 김창수 김효원 양혜미
장익수

해양학
신윤식

토목해양공학
김서리 우수민 우주경

생물학
김민진 양미연

화학
고하나 신승희

가정관리학
이재영 이지민

의류학
오정순 윤성희

체육학
김동훈 박선영 송오비 이진호

식품공학
김경민 김지현 이충우

통신공학
이시훈

컴퓨터공학
김윤희

건축공학
바드만양보어용 만다하

메카트로닉스공학
양영진

의학
배재석 이재근 채수민 최중우 강문석 양창희
한상철 김미연

간호학
이승희 박미경 고연자 김종필

수의학
이제욱 김기승 정진우 현주미

음악학
이성희

한국학협동과정
박지영 왕천천

해양기사학협동과정
김광석 고철민

풍력특성화협동과정
강명석 김충욱 김형택 박의장 진정운 현승건

응용생명공학
구엔탄투안 메이타이트랭 황순희
김광훈 팜티하이하

해양시스템공학
고성협

에너지응용시스템 기계공학
김중우 김현관

에너지응용시스템 에너지화학공학
천세민 좌은진 김태형

에너지응용시스템 전기공학
왓나우딩

해양시스템공학
김주호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송지연 문가은

국어교육전공
양하얀

영어교육전공
현숙자 고혜정 김우정

일어교육전공
윤성숙

사회교육전공
김흥탁

역사교육전공
강남욱

생물교육전공
강택중

화학교육전공
송명철 김지희 변승희

가정교육전공
김수지 황승희

영양교육전공
한지혜 이현정

체육교육전공
고명식

미술교육전공
문보경 좌유경 정미정

초등실과교육전공
김은정 진순실

초등교육학전공
김민정 양정은

경영대학원

경영학
김종현 이광호

회계학
진부영

무역학
이영록

경영정보학
윤상훈 강민성

관광개발학
김희현

행정대학원

행정학(일반행정)
전양우

행정학(지방자치)
김미숙 정기원

법학
양상욱

언론홍보
서승모

산업대학원

전자전기공학 전기공학전공
홍진철

건설환경공학 건축공학전공
이은경

통역대학원

한영과
강인나 문나은 오은숙 강수정 김미형 오은영

한중과
조옥란 김애순 이천용

한일과
송화정

의학전문대학원

의학
고근혁 고현실 광혜원 기유정 김기홍 김성근
김학식 김혜린 문다나 박영미 배종환 부기영
서보경 서우정 서혜미 송재민 신윤혜 양경훈
윤혜원 이남선 이은경 이주황 이지훈 이태완
정영환 정혜영 정희철 조금란 조민지 좌혜영
진승영 최아름 한소희 허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수여자 명단

임공 강병삼 허재성 김수진 이명준 김상헌 박지훈 박현근 이진원 신상욱 김주완 김상진 오승민 김성훈 차영민 조용건 김형근 이호준 김유정 김주엽 박항미 박정수 정지웅 김민성 황준일 최연석 강전애 이나연 양영심 노상일 이동찬 이등규

학사 명단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이율 김재현 고민석 고재원 변승현 남재민 임아름 문민경 김경미 김진 이안나 정수신 하지현 소리마치아시아 유인진 박홍미 손려려 이명익 유권

영어영문학과
이민석 임현준 강지아 김광호 양성목 김민경 맹세연 양연수 이주연 정보영 고지혜 강혜령 김예원 김현경 김현정 문수정 김형숙 강지운 고경미 김미경 이동서 김대훈 한정택 강정훈 강지윤 문승도 오창화 현미

독일학과
김나은 김은희 김재두 김효은 백아람 김채현 고은지 김수진 김혜숙 이지화 강세미 김혜은 박경숙

일어일문학과
김명수 김보민 김성탄 김효선 강정민 김지수 이아름 장보민 강의진 김유내 김효진 송유훈 안미영 오예슬 조미현 최혜실 예호균 예호상 김보미 강새롬 김주향 이소베유코 임진양 이주원 김은지 권정룡 이진철 김현지 김경철 윤순민 김형국 신태영 채혜령 김제석

중어중문학과
강경돈 문성현 정지은 김초선 김혜란 김미정 강진아 곽명신 김보현 김은혜 김혜연 서다예 임소진 장지원 현정아 김민형 김보미 오유민 최유리 이진삼 고영진 고영준 강정우 윤희제

사학과
정연아 문성중 강효정 임정훈 강정섭 강혜진 박시무열 정희석 임윤희 강윤주 김우리 이민지 홍주희 강수연 김누리 김미경 김성혜 박현아 부혜진 김지현

사회학과
강기태 강남훈 강혁 권민희 박인규 지창규 강수근 정민용 강준연 김시호 김윤호 박진웅 박현민 원정환 이영돈 홍주영 고아라 김성은 김지은 진보배 고은경 김승미 나희빈 백지원 신진화 오보람 최정음 편주미 홍의미 강민수 김근하 강보란 김미라 방현정 이항화

철학
양두혁 부종선 강경준 강동민 양미래 정병권 임지현 정우석

법정대학

법학부(야)
김태현 양성민 오수빈 유대성 윤재두 이동건 이순자 고은호

법학부 법학전공
김형철 서정용 부대령 강인엽 강정훈 고성권 김정현 변정훈 윤정식 김재우 박순이 전성운 정동훈 허한웅 김민철 고승필 김경태 김세엽 김태형 김현준 김현민 문기혁 오승재 윤정 이재훈 고은경 박준 양윤상 오문영 오정일 이치승 이태호 현영아 현용하 고예란 고지현 김새롬 문지영 신은영 임한별 장보윤 장혜연 한소영 허은지 현민지 현연재 김선량 김설아 김윤정 김지은 남경림 박소영 박소현 부소현 윤미영 정진영 좌유진 한지현

법학부 국제법무전공
지승주

행정학과
고은혁 김형범 김석재 김호연 강민중 구경석 문경환 양형식 장하영 정대상 김동호 오치립 조대관 차성희 최지영 정창훈 이세윤 강현진 고석빈 고수나 김동근 문현철 박소연 이혜민 정창훈 진지영 홍윤정 강윤주 김수미 김완필 김유리 김은주 서정연 양미라나 이지연 이하영 장연주 현승재 김성목 김지령 고미선 고지은 권미 김아름 김은희 문제희 부지영 신현하

이유선 임상훈 장영미 변민정 강은주 고명신 고은미 고주리 고혜지 김미진 김주현 김한나 양가를 오수진 현금희 오아람 김동기 김민경 김승환 문종식 김희정 고은성 김유창 양기원 이은정 장복춘 정윤경 송수연

정치외교학과
김상걸 김광수 김윤규 정주현 김성환 김민석 김형운 문군보 최성준 고영호 이강산 고예슬 신지아 강아령 송명현

인문홍보학과
고승만 임상일 강오현 장한림 오경중 송용현 양정은 원지환 양인경 고유리 고지연 박소정 강진우 고영란 고아라 김태연 송경주 신윤미 우혜림 이지연 김남희

행정학과(야)
강지천 이소의 조주호 고아라 김진희 오상철 홍창배 고영주 김인만 김순금 김옥연 김현숙 이은주 이지현 한봉금

경상대학

경영학과
구비호 문석준 김태형 강보윤 고찬수 김동범 이준협 임병수 안정남 김승주 김안홍 강대건 김규진 김민철 김상훈 류근희 문순욱 문성현 박병준 원도연 이재진 이지성 이창준 한승석 임성혁 김창호 김태영 이민우 정승환 양윤정 임주현 오정림 김민정 이윤정 현아람 박은경 강규연 고승연 김경하 김나미 김혜경 송나리 오미내 조유진 홍미지 최준철 이미선 고은선 남예화 이근철 장문선

관광경영학과
강경호 강윤식 한당희 김솔민 유승현 이동훈 김동성 김희운 박진표 임진강 이동구 강민주 강시원 금창만 김우중 박상준 이상훈 조진명 강지혜 김경철 김수현 양소현 오수연 이희은 최송희 현현희 김상근 김은지 고유미 권정연 김경희 김미강 김민아 백민진 이미림 이슬기 이진명 박주연 백수지 윤문주 최한 김범윤 김수진 김지숙 김지은 김창용 박나영 서지연 신우경 심재훈 오민지 이소영 이민석 한연지 현석영 이지방 김나영 황태식 김정은 고봉균 이현아 김병근 김민정 강준협 주아남 국기 왕징지 강문성 김주애 문지우 신종철 양미정 임동현

관광경영학과
강경호 강윤식 한당희 김솔민 유승현 이동훈 김동성 김희운 박진표 임진강 이동구 강민주 강시원 금창만 김우중 박상준 이상훈 조진명 강지혜 김경철 김수현 양소현 오수연 이희은 최송희 현현희 김상근 김은지 고유미 권정연 김경희 김미강 김민아 백민진 이미림 이슬기 이진명 박주연 백수지 윤문주 최한 김범윤 김수진 김지숙 김지은 김창용 박나영 서지연 신우경 심재훈 오민지 이소영 이민석 한연지 현석영 이지방 김나영 황태식 김정은 고봉균 이현아 김병근 김민정 강준협 주아남 국기 왕징지 강문성 김주애 문지우 신종철 양미정 임동현

회계학과
박태환 고승주 김은형 이소묵 강현 김성욱 김수영 김지훈 김하영 윤상익 이민우 진영민 고병수 김성대 박진혁 임지웅 전형욱 한상준 김민정 김안나 변은희 오승준 김동철 오승환 고병조 김나리 김민형 김은지 유은주 임성아 하건택 한승이 강선영 강정윤 고예영 고은애 고지혜 김보미 김정미 박연주 양유승 오수연 윤미리 이혜민 좌은애 최다혜 홍지아 부순중 윤영실 이경희 이선희 이수민 진희영

무역학과
강수철 송재훈 박성호 이광구 강민우 강세원 정재업 허방훈 강민환 이창용 현승환 김인영 김혜진 전예린 정선희 최영실 장소 주국량 김미정 박지은 양희아 이호진 임경민 조윤주 영선량 김소은 오수영 윤정수 홍성주

경제학과
김지원 조현우 현승학 고동현 송정철 임승현 강성흠 고의남 양호원 오경범 조수형 한희천 황우철 고용희 김성진 장진주 최진현 현우경 황제용 김소형 박서희 박소연 이수연 이현우 김미경 양두영 초희 고동희

관광개발학과
금동식 김경남 고경희 고주역 윤희진 이용환 오준영 이근우 김석준 김원규 김유리 김현진 김해지 백은지 허지원 김애리 김세리 문슬기 송가영 김예지나 장혜정

경영정보학과
현정업 김대운 정재현 김완수 송영현 우재혁 현승우 김관필 박근범 배봉근 최준혁 강미진 강한샘 고은식 고희정 김은애 송윤승 송홍지 양다래

경영학과(야)
홍원기 모상현 최성민 김성원 허승현 강성수 문숙 박정현 안연진 양덕철 신용희 임주혁 함준현

회계학과(야)

박주영 양제문 오성구 유국일 이하나 김지은 강원석 문기돈 손상국

관광경영학과(야)
고기호 임현호 하태일 허재진 권영민 김준형 이상엽 이선호 한지민 손승룡 송철림 조슬기 최진혁 오태현 황미화 김재정 박영주 송태우 이수영 강원석 심은숙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강창우 김관태 김동현 김승현 부준섭 송우철 양훈일 이은주 김현정 정현주 표지애 강주연 고은아 김연아 김지연 송충현 신지원 이예은

영어교육과
이영철 김나라 김지은 한재우 김현정 이세경 김슬비 강희령 김형민 허진철

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전공
강동혁 양승경 김누리 김재은 김미경 김미진

사회교육과 지리교육전공
윤대근 이정호 정근오 김하나 박소연 박보람 신미애 최슬기

윤리교육과
양대로 박재은 강민지 고은 박선영 양정화 양지나 오로라 이성욱

수학교육과
양웅민 김석천 김욱 박종민 배진성 서호철 오규훈 한태국 고훈건 김윤미 김한솔 남연정 양희정 이미나 김지원

과학교육과 물리교육전공
김봉철 김진영 오태민 좌용호 한동수 이석주 김병찬

과학교육과 생물교육전공
유동진 황호연 문지섭 문선영 부수영 이정환 최다현 이용진

컴퓨터교육과
김성근 강동연 강철호 이지훈 진승훈 김중동 양진혁 우상근 임경덕 정은주 차슬아 김은아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물산업학부 식물자원환경전공
정호준 김도현 문창훈 강우용 고지훈 김경남 김민성 김지훈 한영규 윤민우 조아정 강석원 박은지

생물산업학부 원예환경전공
고성우 양은창 윤시은 현승환 김지홍 김은진 고아현 양순영 이선희 정은지 홍길자 장수중

원예생명과학부 원예과학과
장유범

생명자원과학학과 동물자원과학과
김승호

생물산업학부 동물자원과학과
임도훈 김민철 임정선

생명공학부 응용생명공학과
심현준 문경현 강민석 문환 박승천 박신영 송상목 박지은 양영조 송은우 이도심 장하나 전수한

생명공학부 분자생명공학전공
강주연 안재형 박정호 서준걸 강호진 고동희 최민희 강성아 김민주 김수실 송미주 이지현 박정연 유한나 송동환

생명공학부 동물생명공학과전공
김대경 조준호 김지선 강성림 김지희 박지윤 김대호 변완수

산업응용경제학과
강건우 이경흠 김세모 오영준 김도현 김병철 김보성 오동근 강세진 고민지 김효인 박소라 안승필

해양과학대학

해양과학부 해양생산과학과
강동현 현승훈 김태완 이승찬 홍창열 강준영

김민철 나성조 박종민 유영민 이충훈 강민호 강홍택 고웅민 고우리 김경록 김성민 김우영 문성현 문영수 신경식 오재영 이유철 정재익 한리화 홍홍석 고창성 유정봉 윤우석 이태우 임한솔 정승찬 정승현 강석경 문혜진 유수란 황균도 김리나 송기수 이지은 최경목 홍성원 정상희

해양과학부 해양산업공학과
김준호 장영석 양수환 한문용 강민석 강웅 고용석 김태용 신영승 안재우 안현우 양재협 윤정현 조주희 최성윤 김지호 이나은 이동현 이주현 이호근 강신혜 강우종 이미리 이현희 이혜빈 고지우 장수아 정용석 정찬우 현성희 강제철 박현학

해양과학부 토목환경전공과
오정협 부용호 김형석 신미루 정재성 정동수 김근혁 이재혁 정슬 현범석 홍기현 강원철 고근호 고명진 고호준 김경현 김동한 김봉관 문창호 박현우 현승희 김용승 변지선 고소연 고슬기 김주환 우형택 이귀한 허주희 강우성 김성원 김화영 오석환 오창봉 윤정훈 임상혁 임성규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김진현 고기탁 김현우 오대호 윤성원 천성진 강태영 문삼현

생물학과
강문석 고영호 진지한 강동완 강민국 구동환 임종현 백해지 강영재 고아라 국슬아 나보라 변유경 부상연 부여진 이형우 진선희 황보화

화학과
한정환 강명완 강종석 김진혁 류정진 문보용 양현진 백승준 오한솔 김규림 양대용 오주연 이나리 한성혜 김여은 부은주

식품영양학과
양우중 고용 이성수 김준영 최유리 김호선 김혜진 강윤영 고은경 김미나 김미성 김세운 김수경 김수연 김은희 김혜인 박민항 박은아 송상의 송은경 신문경 오은의 이보람 이수민 이혜경 임해란 정나연 진선미 최소리 홍은희 강지숙 고주희 문영준 서정국 윤지혜 이미란 조수아

수학과
김성표 안대건 정경승 김동건 김영훈 임영신 강병철 강현웅 김동현 임성진 김경석 김동환 김성대 김재우 김준석 이호준 송광은 강꽃무늬 고경희 고현나 김현아 문세희 박소영 양경희 양소윤 오나영 오지연 오혜화 장세진 김윤희

가정관리학과
김태환 김지우 송원신 진은필 김성용 박나영 부성철 장미 강정에 조민혜 홍양화 강민주 강윤경 강은성 강지연 강지희 고은경 고은애 김미나 김은숙 김지은 김지현 김현경 김효선 김효연 문주리 박지숙 부현지 석재경 양혜경 오민희 이수정 임수행 임연진 정준영 오윤경 고은비 김미자 안선영 안윤아 임주현 장혜정

전산통계학과
김경민 장문중 강근철 백승용 양동원 오중협 고영재 김관우 강동수 김상현 김인남 박진범 송성한 한동수 강동훈 신효정 안병준 오호건 정욱영 조유라 정명민 이정민 정은혜 홍지웅

의류학과
고경준 강승기 김동원 김은영 허유미 고상우 김주연 진현주 현해림 유진주 김이슬 김현정 박유경 양혜진 이기영 허지선 김소영 고권정

체육학부 체육과학학과
이충훈 강민혁 김태홍 최양범 최지훈 정기욱 김한균 문영삼 송경수 오몽진 정호준 고남협 김용찬 부순현 심민규 임동근 김성훈

체육학부 레저스포츠학과
한웅석 최진선 강형석 고영석 김진우 정성민 김선길 김현지 부병준 신민경 오정순 유희주 윤인숙 오신영 이소원

전산통계학과전 전산통계학과
김덕홍

공과대학

식품생명공학과
고혁진 김성수 김민수 박재영 허성철 강민지 박경열 조대왕 권초롱 김난금 정수열

기계시스템공학부 기계공학과
조성재 고영재 김성현 김용호 김우철 김지환 김태형 김평조 박대희 이인원 현근호 김명우 강준철 고용우 변창훈 현명일 김다희 조한나 강재현 장은지

기계시스템공학부 메카트로닉스공학과
김홍재 김승환 황의철 오준호 강현진 김봉원 이종훈 홍의웅 이성훈 강주한 신소윤 오보미 홍성진

통신공학과
오용균 고경호 임성혁 박병준 김도형 김영탁 김지수 김지훈 문기철 부지용 송세린 오남규 이영호 허영글 김민규 김영호 양은석

에너지공학과
변영찬 김정수 김준석 김정한 이경수 최진호 오영신 장은영 강은정 백병철 임혜지

컴퓨터공학과
조성현 고유진 부기현 이광현 강형민 고기봉 김동국 김세훈 박기덕 백기훈 천재영 허정현 현영진 장재만 김현진 강민철 강승훈 강익선 고시철 고윤환 김영덕 문승보 안민철 오승준 윤인찬 조윤아 한수민 강민협 곡영철 김종규 오도연 임영재 정봉수 장재혁 강민지 김승주 윤미자 이유미 이지성 바야르마그네 윤치호 김동우

전자공학과
문정혁 고근협 양석근 오승호 이원영 고창배 고혁준 김성화 양진석 이주호 전해동 정호균 강행진 오승엽 현범철

전기공학과
강덕만 김민철 김태완 조현철 허익주 허정훈 고평강 이승봉 김민우 강동우 고권하 고성진 고원별 고지영 김동 김동완 김석진 김성진 김태경 김홍범 문보현 문원근 이승주 한승일 한창환 한총협 이우진 강승진 강용훈 고승철 고지영 고지한 김보성 김영덕 박윤석 송기석 이상연 이태원 황수환 부지원 김윤희 박미리 한승이 박철완 이준형

생명화학공학과
서민철 양진욱 강지훈 손진수 김희혁 이종현 고병호 정중우 최나영 황승용 김민홍 김효진 이세라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김동관 김수영 이경혁 이양우 이현민 전우진 좌시훈 오창협 이승호 이정준 이형준 최성현 최수경 양소영 고나랑 김희람 정승란 현지원 이진경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설승민 강동휘 고호성 윤철 이기운 김현정 박종범 변정현 오정은 강은비 송민정

산업디자인학부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장근녕 김진만 김태현 박성환 허웅준 고자영 양유정 양정훈 이승만 박하나 신가영 윤여정 이민정 신가림 김해린 김선주 김주미 김진리 김형진 문해웅 문혜은 이주미 양소희 안병 박유주 이지은 장진희

산업디자인학부 문화조형디자인학과
최종승 이미희 최수민 강인구 류민우 홍지수 고지현 김은영 양진영 임진향 김민혜 김윤영 심우아 이누리 장금란 정재환 현미나 홍윤아 이호철

의과대학

의학과
김유진 황길 윤정환 허준영 윤정윤

교육대학

초등교육과 윤리교육전공
김래영 김형 오혜지 양내경 양은선 이재관 장보라 정민희 홍효정

초등교육과 윤교육전공
김민경 고근영 김가를 김성수 김지현 소아랑 양은지 이서희 이진화 최중화 현용수 현주연

초등교육과 수학교육전공
이지미 강희창 고서연 박유진 박은미 송은지 양세영 양은선 이서안 이선아 임주혜 장혜희 전수영 정승필 함승일

초등교육과 사회과교육전공
강연정 강보희 강선영 고효영 김수미 김신아 김장혁 김현수 신구룡 양길완 오은혜 정기호 현재림

초등교육과 과학교육전공
강윤아 김동원 김맹범 강인혜 김주현 김지범 김현지 신혜지 오제민 이재민 한정화

초등교육과 체육교육전공
이희혁 정유진 김명기 김소영 문정훈 유지훈 이상중 이에나 정다정

초등교육과 음악교육전공
김영지 김상준 김현경 문성의 오은정 유희희 이수규 이시우 임진향 정은미 정임

초등교육과 미술교육전공
심명희 진영지 감미조 강희진 김수연 김효준 류가빈 박나연 박슬비 신승화 한승훈 홍민지

초등교육과 실과교육전공
심효빈 강성엽 강수진 권지웅 김경은 김수진 김혜진 류미나 문지미 이진미 임다영 황준호

초등교육과 교육학전공
양동주 강보미 강소희 김수영 김태용 김효섭 남준우 양정환 양준혁 엄지원 이계아 임요한 임채리 홍연주

초등교육과 영어교육전공
김은지 김수지 박승남 박윤진 박현정 부창용 양선경 전지현 현효주 홍민희 홍호선

초등교육과 컴퓨터교육전공
전진수 박지연 강승석 김은경 박소현 박진욱 이선영 이유진

수의과대학
김동근 황대경 고은방울 권정현 문승현 고대혁 김동은 김소민 김수민 김수휘 김승원 김용우 김중휘 김창환 김현석 김현우 김희선 박혁 빙소진 서정현 송재원 송준영 신재영 양수봉 유광수 이경호 이민호 이원호 이중화 임재성 전지민 정라원 정원주 최성영 곡혜진

간호대학
간호학과
이정환 강승래 강여정 강윤정 고미연 고효숙 김나래 김다혜 김미연 김민정 김보미 김유미 김은희 김주리 김현정 김보민 김희연 문은아 부경이 송정희 오상민 오슬기 유주연 윤성주 이가를 이광순 이동은 이영미 정수연 최지은 허유림 현은주 현정미 현제연 현주희

간호학과
이정환 강승래 강여정 강윤정 고미연 고효숙 김나래 김다혜 김미연 김민정 김보미 김유미 김은희 김주리 김현정 김보민 김희연 문은아 부경이 송정희 오상민 오슬기 유주연 윤성주 이가를 이광순 이동은 이영미 정수연 최지은 허유림 현은주 현정미 현제연 현주희

간호학과
이정환 강승래 강여정 강윤정 고미연 고효숙 김나래 김다혜 김미연 김민정 김보미 김유미 김은희 김주리 김현정 김보민 김희연 문은아 부경이 송정희 오상민 오슬기 유주연 윤성주 이가를 이광순 이동은 이영미 정수연 최지은 허유림 현은주 현정미 현제연 현주희

간호학과
이정환 강승래 강여정 강윤정 고미연 고효숙 김나래 김다혜 김미연 김민정 김보미 김유미 김은희 김주리 김현정 김보민 김희연 문은아 부경이 송정희 오상민 오슬기 유주연 윤성주 이가를 이광순 이동은 이영미 정수연 최지은 허유림 현은주 현정미 현제연 현주희

간호학과
이정환 강승래 강여정 강윤정 고미연 고효숙 김나래 김다혜 김미연 김민정 김보미 김유미 김은희 김주리 김현정 김보민 김희연 문은아 부경이 송정희 오상민 오슬기 유주연 윤성주 이가를 이광순 이동은 이영미 정수연 최지은 허유림 현은주 현정미 현제연 현주희

간호학과
이정환 강승래 강여정 강윤정 고미연 고효숙 김나래 김다혜 김미연 김민정 김보미 김유미 김은희 김주리 김현정 김보민 김희연 문은아 부경이 송정희 오상민 오슬기 유주연 윤성주 이가를 이광순 이동은 이영미 정수연 최지은 허유림 현은주 현정미 현제연 현주희

간호학과
이정환 강승래 강여정 강윤정 고미연 고효숙 김나래 김다혜 김미연 김민정 김보미 김유미 김은희 김주리 김현정 김보민 김희연 문은아 부경이 송정희 오상민 오슬기 유주연 윤성주 이가를 이광순 이동은 이영미 정수연 최지은 허유림 현은주 현정미 현제연 현주희

간호학과
이정환 강승래 강여정 강윤정 고미연 고효숙 김나래 김다혜 김미연 김민정 김보미 김유미 김은희 김주리 김현정 김보민 김희연 문은아 부경이 송정희 오상민 오슬기 유주연 윤성주 이가를 이광순 이동은 이영미 정수연 최지은 허유림 현은주 현정미 현제연 현주희

간호학과
이정환 강승래 강여정 강윤정 고미연 고효숙 김나래 김다혜 김미연 김민정 김보미 김유미 김은희 김주리 김현정 김보민 김희연 문은아 부경이 송정희 오상민 오슬기 유주연 윤성주 이가를 이광순 이동은 이영미 정수연 최지은 허유림 현은주 현정미 현제연 현주희

간호학과
이정환 강승래 강여정 강윤정 고미연 고효숙 김나래 김다혜 김미연 김민정 김보미 김유미 김은희 김주리 김현정 김보민 김희연 문은아 부경이 송정희 오상민 오슬기 유주연 윤성주 이가를 이광순 이동은 이영미 정수연 최지은 허유림 현은주 현정미 현제연 현주희

간호학과
이정환 강승래 강여정 강윤정 고미연 고효숙 김나래 김다혜 김미연 김민정 김보미 김유미 김은희 김주리 김현정 김보민 김희연 문은아 부경이 송정희 오상민 오슬기 유주연 윤성주 이가를 이광순 이동은 이영미 정수연 최지은 허유림 현은주 현정미 현제연 현주희

간호학과
이정환 강승래 강여정 강윤정 고미연 고효숙 김나래 김다혜 김미연 김민정 김보미 김유미 김은희 김주리 김현정 김보민 김희연 문은아 부경이 송정희 오상민 오슬기 유주연 윤성주 이가를 이광순 이동은 이영미 정수연 최지은 허유림 현은주 현정미 현제연 현주희

간호학과
이정환 강승래 강여정 강윤정 고미연 고효숙 김나래 김다혜 김미연 김민정 김보미 김유미 김은희 김주리 김현정 김보민 김희연 문은아 부경이 송정희 오상민 오슬기 유주연 윤성주 이가를 이광순 이동은 이영미 정수연 최지은 허유림 현은주 현정미 현제연 현주희

간호학과
이정환 강승래 강여정 강윤정 고미연 고효숙 김나래 김다혜 김미연 김민정 김보미 김유미 김은희 김주리 김현정 김보민 김희연 문은아 부경이 송정희 오상민 오슬기 유주연 윤성주 이가를 이광순 이동은 이영미 정수연 최지은 허유림 현은주 현정미 현제연 현주희

간호학과
이정환 강승래 강여정 강윤정 고미연 고효숙 김나래 김다혜 김미연 김민정 김보미 김유미 김은희 김주리 김현정 김보민 김희연 문은아 부경이 송정희 오상민 오슬기 유주연 윤성주 이가를 이광순 이동은 이영미 정수연 최지은 허유림 현은주 현정미 현제연 현주희

간호학과
이정환 강승래 강여정 강윤정 고미연 고효숙 김나래 김다혜 김미연 김민정 김보미 김유미 김은희 김주리 김현정 김보민 김희연 문은아 부경이 송정희 오상민 오슬기 유주연 윤성주 이가를 이광순 이동은 이영미 정수연 최지은 허유림 현은주 현정미 현제연 현주희

간호학과
이정환 강승래 강여정 강윤정 고미연 고효숙 김나래 김다혜 김미연 김민정 김보미 김유미 김은희 김주리 김현정 김보민 김희연 문은아 부경이 송정희 오상민 오슬기 유주연 윤성주 이가를 이광순 이동은 이영미 정수연 최지은 허유림 현은주 현정미 현제연 현주희

간호학과
이정환 강승래 강여정 강윤정 고미연 고효숙 김나래 김다혜 김미연 김민정 김보미 김유미 김은희 김주리 김현정 김보민 김희연 문은아 부경이 송정희 오상민 오슬기 유주연 윤성주 이가를 이광순 이동은 이영미 정수연 최지은 허유림 현은주 현정미 현제연 현주희

간호학과
이정환 강승래 강여정 강윤정 고미연 고효숙 김나래 김다혜 김미연 김민정 김보미 김유미 김은희 김주리 김현정 김보민 김희연 문은아 부경이 송정희 오상민 오슬기 유주연 윤성주 이가를 이광순 이동은 이영미 정수연 최지은 허유림 현은주 현정미 현제연 현주희

간호학과
이정환 강승래 강여정 강윤정 고미연 고효숙 김나래 김다혜 김미연 김민정 김보미 김유미 김은희 김주리 김현정 김보민 김희연 문은아

도로표지판·기관명 등 혼동된 영어표기 많아... 올바른 영문명으로 바로잡아야

제주국제자유도시 영문 안내판을 중심으로 (Signposts in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송필순
본자생명공학전공 석좌교수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제주 방문이 처음인 외국 관광객을 상상해보자.

김포에서 출발, 국내선 도착 출구를 나오면 바로 앞에 편리하게 관광관련 정보센터가 보인다. 그런데 영문이나 외국어로 된 소개책이나 안내flyer는 보이지 않는다. 전시된 홍보물들을 가리키며 관광객이 묻는다. "Do you have these flyers in English?" 안내원이 약간 당황하면서 통역스럽게 손가락으로 국제선 출구쪽을 가리키며 답한다. "Go to International, 저쪽이요."

한참 짐을 끌고 국제선 출구 앞에 가면 그곳에 안내원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영어나 일어로 쓰인 flyer나 소개책들이 있고 국내선 출구 앞 홍보데스크 보다는 양적으로 초라하지만 광고 홍보물이 진열된 것이 보인다. 관광객이 의아해하며 생각한다.

제주에 첫발 내딛는 순간부터

외국인은 당혹스러워...

헛갈리는 영어 표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 때

제주에 오는 외국관광객은 대부분 국제선을 타고 오고 인천이나 부산국제공항을 통하여 국내선으로 갈아 타서 제주에 들어오는 외국관광객은 많지 않으나 제주에 오는 외국관광객은 압도적으로 국제선 출구를 통해 나온다? 그래서 제주도가 International Free City인가 하고 관광객이 생각하며 관광홍보 flyer 몇장을 가지고 나온다. 관광객의 제주관광 첫 날이 시작된다.

그런데 'Jeju International Free City'는 뭐지? 제주에서 뭐가 free라는 거지? 정치적으로? 인권이? 상점에 진열된 상품이 모두 공짜? 택시 기사에게서 대중 JIFC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관광객이 생각해 본다. 'International Free Trade Zone' 혹은 'International Free Trade Province'는 어떨까 하고.

택시가 도청 앞을 지날 때는 무슨 빌딩인지 제주특별자치도도청이라는 영어 이름 'Jeju Special Self-Governing Gov-

ernment Provincial Office'가 너무 길어서 그 앞에 서서 봐야지 읽을 수 있을 정도. 그리고 'Governing'과 'Government'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도 영어 식 표기에서는 피하는 편이다. 친구에게 한국에 관광간다고 말했다니 한국사람들은 'Special'이라는 말을 좋아한다고 했다. 그래서 서울도 그냥 서울이 아니고 서울특별시라고 부른다고 한 말이 기억난다. 세계에서 한국만이 큰 도시나 수도를 '특별'을 붙여 부르는 나라인가 의아하다. 하긴 서울이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으니까 특별이라고 부를만하다. 그러나 관광객은 제주도청 영문명을 관광 flyer중의 하나에서 발견하고 이렇게 쓰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본다. 'Jeju Autonomous Government Province Office' 혹은 영어 간소화 표현의 미(beauty)를 받아드려 'Jeju Autonomous Province Office'로 하면 좋을 듯 한데, 왜냐하면 'autonomous'는 자치(self-governing)를 뜻하니까.

제주공항을 나와 신제주로 들어올 때는 교통안내판이나 상징광고판에 'SinJeju', 'Sinjeju' 혹은 'Sin Jeju' 같은 영문 표기를 접한다. 왜 영문 표기가 제 각각일까 하는 의구심은 제주 곳곳에서 다른 종류의 광고나 안내판에서도 볼 수 있다. 'Sinjeju'라고 쓰면 '신 제주'라는 의미를 전하지 않고, 'SinJeju'나 'Sin Jeju'로 표시하면 도박과 흥행의 도시 라스베가스도 들어가는 고속도로 길가에서 볼 수 있는 'Sin Las Vegas' (라스베가스에서 도박하고 스트립쇼 등을 보고 즐기라는 유머섞인 광고)를 상기시킨다. 관광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catchphrase인데, 'Ski Colorado(콜로라도에서 스키를)'가 대표적이다. Sin Jeju에서 sin(죄)을 범해볼까 하고 관광객이 생각해본다. 관광객은 택시기사 '신제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Shin Jeju' 혹은 'Shin-Jeu'로 영문표기 하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물론 구제는 'Old Jeju'로 표시한다면 세계 큰 도시 마다 있는 'Old Town'을 찾고 있는 관광을 유인하는데는 안성맞춤이다. 제주 Convention and Visitor Bureau (CVB) 책자에는 'Shinjeju'를 쓰고 있다.

관광이 연동 쇼핑가를 window shopping하며 걸어본다. 새 도로 주소 표지판에 연동 7길이라고 적혀 있다. 7길 양쪽 길들은 각각 6길, 8길이라고 표시 되어 있다. 7길 대신에 '연동 중심가(Yeondong Main Street)'로 표시하면 관광객이나 주소를 찾는 제주 사람들에게도 편리할 듯한데 하고 생각해본다.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의 거리가 각각 Broadway와 Market Street를 좌우로 숫자거리를 표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7길'을 영어로 '7-gil'이라고 표기하기 보다 '7th Street'라고 하는 것이 더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gil'을 '질'로 발음하는 외국관광객들도 물론 많을 듯하다.

관광객이 렌터카를 몰고 제주의 해안도로로 향한다. 보일락 말락한 크기의 교통안내판에 'Seaside Road'라는 표기가 보인다.

해안도로를 더 찾다보니 'Coastal Road'라는 안내판도 보인다. 어디선가 'Seaside Street'라고 쓴 것도 본 듯하다. 한글로는 '해안도로'라고 통일되어 있는데 영명은 다양하다. 관광객이 의아하게 생각한다. 해안도로를 드라이브 하면서 'Shoreline Drive'로 통일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다. 많은 관광객을 유인하기에는 해안도로를 'Ocean View Drive'라고 명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해안가 공원은 'Seaside Park'가 좋다.

관광객이 제주 일주도로를 달린다. 일주도로는 영문으로 무엇이라고 쓰여 있지? 서울 지하철 2호선처럼 좀 이상한 'Circulation'이라는 단어를 써서 'Circulation Road'라고 하나? 서울 일주(순환)전선도로 그렇고 제주도 일주도로도 'Loop'를 쓰면 좋을텐데, 그래서 'Island Loop' 혹은 간단히 'Loop Drive'로 하면 Ok!

Sin Jeju → Shin Jeju

7-gil → 7th Street

Navigation → Navigator

Power sale → Fire sale

드라이브를 하는 관광객이 제주도 유일의 '고속도로' 안내 지도와 도로 교통안내판의 다양함에 혼동되어 손을 들고 만다. 평화로, 산업도로, 서부관광도로, 95도로, 1135도로. 어느 지점에서는 1135가 갑자기 1136으로 되기도 해 혼란을 주기도 한다. 영어표기만은 'Jungmun Highway'로 통일하면 어떨까? 'Jungmun Highway'를 써보니 외국인들은 '정면'이라고 발음하기가 일수일 듯하다. 그렇다고 미국식으로 'Joongmoon'이라고 쓰면 너무 길고...

중문으로 넘어가는 리무진 버스에서 보이는 오름들은 관광객에게는 세계 다른 곳에서 보기 드문 장관이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다. 오름에 관한 flyer를 읽다가 오름을 'Parasitic Volcanoes'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았다. 보통 이름이 아니고 지질학적이름처럼 들린다. 관광객이 보기에는 'Cinder Cones'로 부르는 것이 더 쉽고 간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며 과속으로 앞 질러 지나쳐 가는 어느 관광회사 버스를 본다. 버스 옆벽에 '오름관광 회사'라고 쓰여있다. 버스의 뒷창 밑에는 영어로 'Elevation Tours'라고 써있다. 관광객이 애써 웃음을 참는다. 그냥 'Oreum Tours'를 교묘명사로 쓰면 좋을 텐데 그 관광버스회사에 영어를 패하는 사원이 있었나 보다.

말이 나온김에 관광객이 웃음을 참았던 기억이 난다. 제주공항에서 탑승한 관광객이 택시의 운전사가 운전대 앞 동영상 안내 지도판을 보면서 'Navigator'를 'Navi-



제주도내에 설치된 혼란스러운 영문명 표지판. 맨 위 사진부터 신제주로터리 버스정류장, 제주특별자치도청 입구, 제주 시내 연동 7길 도로명주소 표지판. 강민성 수습기자

gation'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는다. 그 택시 기사는 'Elevator'를 탄다고 말하는 대신에 'Elevation'을 탄다고 말할까? 호텔 방 안에서 보는 TV 프로그램 속에서도 모두 'navigation'이라고 부른다. 이 어이 없는 오류를 중학교 영어를 배운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을텐데 왜 고치려 하지 않지? 관광객이 자주 의아하게 생각하는 영어 광고에는 구제주 소공원도우에 쓰인 '파워세일 (Power sale)'이라는 문구가 있다. 'Power sale'이 뭐지? 아주 싸게 판다고 'Fire-sale'을 말하는 건가. 한글로는 'f'를 'p'로 밖에 표기할 수 없으니 'Fire-sale'이라면 '파이어 세일'인데 이것이 어찌다가 파워세일이 된 것인가? 그럼 파워 인터뷰는 뭐지? 한대 powerful하게 얻어 맞기라도 하는 인터뷰인가?

관광객이 한국사람들을 많이 접하면서 한국인은 'Korea'에 'n'만 부쳐서 'Korean'이고 서울 사람은 'Seoulite'인데 제주사람은 어떻게 부르지는? 모음 'u'로 끝나는 Peru사람을 'Peruvian'이라고 부르니 제주인을 'Jejuvian'이라고 부르나? 광주사람은 어떻게 부르더라? G w a n g j u a n ? Gwanjuvian? Gwanjulite? 제주사람은

'Jejuan'이 좋겠다고 관광객은 생각해 본다.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뉴스란에 가보니 'Jejua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노란 유채꽃밭을 거닐며 관광객이 가이드로부터 유채꽃 축제가 있다는 걸 듣는다. 영어로 'Rape Flower Festival'이라고 부른다고 관광홍보 책자에서 읽은 기억이 난다. 모 지역방송사인 축제 주최측에서 유채꽃축제의 영어명칭을 방송에서도 'Rape Flower Festival'로 부르는데 요즘도 그렇게 부르나? 이걸 정말 해피하게도 '강간' 꽃 축제로 들려서 어안이 방방하다. 유채꽃의 영문명칭 제대로 'Rapeseed Flower'라고 하면 좋을텐데, 제주MBC의 Kendra가 멋있게 말해주는 것처럼.

관광객이 제주사람들의 표현의 다양성에 감탄한다. 제주의 지리와 자연을 상징하는 한라산의 영명이 바로 한 예이다. 'Halla Mt.', 'Hallasan Mt.', 'Mt. Halla', 'Mt. Hallasan' 등 세계지도의 표기법대로 한라산은 'Mt. Halla'로 통일하면 좋을 듯하다. 폭포도 단수로 'Waterfall' 혹은 'Water Fall', 복수로 'Waterfalls' 혹은 'Water Falls'처럼 역시 다양하다. 'Waterfalls'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주도가 남군과 북군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을 때의 관광 책자와 군사부서에서 군수는 'Mayor'로 번역되어 있다. 'Mayor'는 '시장'을 칭할 때 사용하고 'County Commissioner'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몇 가지 공공기관에서 자주 사용되는 영어를 바른 표기법으로 적어본다.

학교 교장은 Principal, 교육감은 Commissioner of Education, 또는 Superintendent of Education, 중, 고등학교 1학년은 Freshman, 2학년은 Sophomore, 3학년은 Senior (대학 2학년은 Sophomore, 3학년은 Junior, 4학년 졸업반은 Senior). 시 행정구는 Municipality, 종합경기장은 Main Stadium 혹은 Stadium Complex.

어(catchphrase)는 짤막한 단어 한 두개로 관광지 이미지를 전해주는 기능을 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제주공항 관광책자에서 'Sparkling Korea'를 볼 수 있다. 관광객은 시원한 샴페인과 여름의 더위를 식혀줄 광천수를 국가산업화한 상징이 Korea Sparkling인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해 본다. 관광객이 마셔본 삼다수야말로 sparkling하다. 'Sparkling Spring Water'는 수출용 삼다수의 병에 써 붙일 만하다.

관광객이 아름다운 제주, 청정제주, 자연이 보존된 환경, 맛이 다양한 제주 토속 음식, 부지런하고 건강한 Jejuans, 푸른 바다, 웅장한 한라산, 재미있는 관광지과 민속 문화 이 모든 것을 일주간의 체류만으로 다 경험할 수는 없었지만 제주를 상징하는 표어 (catchphrase)가 무엇일까하고 책자와 관광 안내판 등을 살펴본다. 'Paradise Island'가 자주 보인다. 그런데 이걸 하와이에서, 남태평양의 섬들, 카리비안 섬들을 관광하면 'Paradise Island'라는 catchphrase를 접하는 문구다. 제주를 'Paradise Island'라고 부르는 것은 창의성이 없다. 그리고 관광객이 보고 느낀 제주의 이미지와는 맞지 않는다. 'Enchanting Island'가 맞다.

두번째로 자주 보는 제주를 상징하는 표어는 'Only Jeju'다. 도대체 무슨 뜻이지? 'Jeju Only'를 뜻하는 건가? 'Only 2002 (World Cup)'인지 '2002 Only'를 뜻하는 것인가 생각해봤는데 'Only Jeju'의 뜻을 다시 한번 더 추측해본다. 'Enchanting Island'는 관광객이 본 제주의 이미지를 잘 전해준다. 제주의 유네스코 자연유산 선정을 찬양하는 재미교포 김택재 시인의 영문 version 시에서도 제주를 'Enchanting Island'로 부른다.

제주를 떠나는 관광객이 볼 수 있는 크고 작은 영어 오류를 고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비자립 입구에 세워져 있는 거대한 대리석 안내판에 새겨진 웃기는 오류는 어떻게 고칠 것인가 걱정이다. 마지막으로 관광객이 제주에 남기고 가고 싶은 catchphrase들을 되새겨 본다.

Breathe Jeju!, Climb Jeju (Mt. Halla)!, Enchanting Jeju!, Hike Jeju!, See Jeju!, Sun Jeju!, Swim Jeju!, Taste Jeju!, Trek Jeju, Trek Olle! Virtual 관광객 송필순

제주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6> 김맹찬 초록모루 대표

'농사는 내 운명' 지속가능한 농업 꿈꾼다

번잡한 제주 시내에서 차를 타고 동쪽으로 20분 남짓 가면 회천동이라는 마을이 나온다. 제주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 넓은 밭들이 보여 시골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회천동에 자리한 밭들을 쪽 둘러보면 어느 밭 입구에서 '초록모루'라는 조그만 팻말을 발견할 수 있다. 초록모루는 김맹찬(45)씨가 농사짓는 녹차 밭이다. 녹차 밭 안으로 들어가면 염소와 오리 등을 볼 수 있어 축산업도 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낚시지 물어보니 팔려고 들여놓은 동물들이 아니란다. 그곳의 동물들은 '친환경 농업으로 재밌게 농사짓기'를 기치로 내건 초록모루 녹차 밭을 함께 가꾸는 농사 동지다.

그가 지금처럼 농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었다. "제주에서는 매년 벌초를 가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 벌초하러 갔다가 그 근처에서 농사짓고 있는 농부들을 본 거예요. 땀 흘리면서 흙을 밟으며 제 손으로 된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농부한테 한눈에 반해서 앞 뒤 없이 '아! 이거다. 나는 농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어렸을 때 운명처럼 다가온 농부의 모습은 그에게 농부가 되는 꿈을 꾸게 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꿈을 얘기하며 같이 꿈꿀 사람을 찾았다. 어릴 때 친구 2명과 대학 친구 2명이 같이 농사짓기로 했다. 지

금의 부인도 농사 얘기를 하며 눈빛을 반짝이다 만났다. 그러나 그는 평생의 소중한 것들을 '농사 지어야지' 하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얻은 것이다.

녹차로 작물선정을 한 것은 우선 '감귤은 피하자'는 생각에서였다. 제주도 1차 산업의 50% 이상이 감귤이라 도내에서 생산되는 감귤의 양이 많아, 자기도 감귤을 하면 경제적으로 서로 타격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제주도내에서 많이 생산되는 작물을 피하고 기후와 토양조건 등을 따지다 보니, 녹차가 제격이라고 생각했다.

녹차 농사를 지으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은 '우선 자연에 해를 끼치지 말자'는 것이었다. 농사는 햇빛과 맑은 공기, 흙과 같



은 자연의 도움을 받으니 도움 준 것에 배신을 해선 안된다는 생각에서다. "처음엔 호미 들고 잡초 매고, 흙도 엮고, 동물 배설물 얻어다가 밭호 시켜서 흙에다가 일일이 뿌리면서 농사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일이었지만, 특히 여름엔 잡초 매면 금방 또 자라고 마르면 또 자라고... 일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많이 지쳤

죠." 그는 어떻게 하면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편하고 즐겁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고민했다. 농법에 대한 공부도 하고 고민도 하다가 그는 '숲'을 떠올렸다. 그는 숲에서 자연의 순환과정을 봤다고 한다. 나무의 잎이 땅으로 떨어지면 미생물이 분해한다. 분해된 것은 그대로 땅의 영양분이 돼 그 영양분을 먹고 나무와 풀들이 자란다. 초식동물들과 풀벌레들이 그걸 먹고 배설한다. 그러면 또 미생물이 분해한다. 초식동물이 너무 많아지지 않게 육식동물이 잡아먹고, 풀벌레가 너무 많아지지 않게 조류들이 잡아먹는다. 그는 그 흐름을 그의 농법에 적용시켰다. 흙에 미생물을 투입시키고 산양, 염소와 같은 초식동물들이 잡초를 먹게끔 풀어놨다. 조류 대신 닭을 풀었다니 풀벌레 잡아먹는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초식동물들이 녹차 잎까지 따먹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녹차의 탄닌 성분 때문에 잘 먹지 않는다. 가끔 딱 먹어도 농사일을 같이 짓는 녀석들에게 주는 현성기자

보느라고 생각한다. 그는 제주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제주의 농업현실에 대해 생각했다. 왜 농부는 의사나 판사 같은 전문직종에 비해서 존경받지 못하는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제주농민회 활동을 하고 있다. 그곳에서 제주 여러 지역의 농민들과 의견을 주고 받으며 친환경적이면서 효율적인 농법에 대해 같이 생각하고 제주지역사회에서의 농민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런 그에게 농부에게 시집 안가는 요즘의 한국사회 분위기는 안타까우면서 동시에 개선시킬 과제다. 자연 생태계에서는 작은 미생물조차 큰 역할을 해내듯 인간 생태계에서도 농부부 의사든 모든 직업의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인정해, 생태계 흐름이 원활히 되는 것을 꿈꾼다. 인간 생태계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는 그는 견고하고 부조리한 사회구조를 향해 오늘도 외친다. "식량생산을 책임지는 농부 없으면 너네는 살 수 없어!" 현성기자



무론유설

이기석
영어영문학과 교수

오키나와는 1879년 메이지 시대에 일본에 병합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류큐왕국으로서 독립국이었다. 그러다가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면서 식민지로 전락한 것처럼 거의 같은 시기에 류큐도 일본의 식민지 땅이 되었다. 2차대전 후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이 된 반면에 류큐는 불행하게도 일본에 이어 또 다시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전후 미국은 오키나와를 동아시아 전역을 커버하는 아시아 최후의 군사기지화 작업을 감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오키나와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무력으로 진압해가면서 민유재산을 일방적으로 강탈해갔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영토 내에서의 유일한 지상전 전진터로서 식민지 땅인 오키나와를 제물로 바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가서 상륙한 미군에 대해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주민 20여만 명이 희생되

오키나와의 눈물

이 순간에도 대만해협으로도 날아가고 한반도에도 날아가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반경이 더 넓어져서 중동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까지도 날아가고 있다. 가공할 네이팜탄을 싣고서, 오키나와의 미군 주둔은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1995년에는 미군의 여성생 성폭행 사건으로 폭발한 주민들의 반미감정과 미군기지 반환운동이 일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2004년에는 미 해병대 헬기가 기지 인근의 오키나와 국제대학에 추락하는 사고까지 발생한 바 있으나 문제의 심각성이 그 도를 이미 넘어서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키나와 최대의 현안 문제로 떠오른 것이 후텐마 미군기지의 이전 문제인데, 미국과 일본은 오키나와의 북부도시인 나고시의 해안지역으로 새 기지를 건설해서 이전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지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상태에 있다.

최근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1만8000명 중 8000명을 오키

나와 밖의 어느 기지로 옮기는 것을 고려중인 모양이다. 이들을 전원 괌으로 보낸다는 설도 있는 반면에 4700명만 괌으로 보내고 나머지 3300명은 여타의 다른 기지 그 중에서도 한국의 서해안 모 기지로 이동시킨다는 설도 들린다. 문제의 후텐마 미군기지를 나고시의 새 기지로 이전하는 것이 해법이 아닌 것처럼 미 해병대의 일부를 해외로 내보내는 것도 해법이 되지 못한다. 오키나와 주민들의 맺힌 한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달리 뾰족할 수가 없어 보인다. 오키나와 전투의 당사자들이 미국의 본토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일본 본토로 돌아가는 방법 이외에 무슨 다른 수가 있을까? 더군다나 오키나와의 문제를 풀기 위한 일환으로 미일 양국이 흑시라도 한국의 기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는 오키나와의 눈물 줄기를 한반도까지 확대하려는 꿈수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오키나와의 눈물을 반추해 보면서 제주 강정마을에서 벌어지는 해군기지건설 반대투쟁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특별기고

현홍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교육지원담당

요즘 대학가의 최대 화두는 '등록금'이다. 지난해 반값 등록금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시·도립대학을 운영 중인 일부 지자체의 등록금 인하, 교육과학기술부의 2조50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지원계획 발표 등으로 일부 현실화되고 있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1년도 일반대학 의학 계열 등록금은 1200여만원이며, 국·공립대학은 약 448만원, 사립대학은 약 754만원에 이른다. 한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2009년 ~ 2010년 대학 졸업자의 32%가 학자금을 대출 받았으며, 특히 월평균 가구소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제도는 지난해보다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우선 대출금리가 전년도 2011년 4.9%에서 1%p가 인하된 3.9%를 적용한다. 취업후 상환학자금(등단학자금) 대출 자격요건을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완화하고 군 복무기간 중 대출이자를 면제한다. 이외에도 최대 2년간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 유예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신용유자의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제주대학교에서도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3년제 동결했던 등록금을 5.7%를 인하(교육대학, 대학원 제외)하여 학부모들의 경제적 고통 분담 해소와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적극 수용해 나아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2010년 3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는 데 이어 지난해 12월 28일 대상자 및 지원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대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일부 경감시켜 주고 있다.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전국 대학에 재학중인 대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재학 및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들에게 지급한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대상자 중 저리1·2종은 학자금 발생이자 중 본인 부담액의 100%를 지원하며, 특히 전국 최초로 등단학자금 대출자에 대하여 본인 부담액의 50%를 지원하여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출신 3000여명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독자기고

김 조 왕
산업디자인학부 1

두 달 전, 대한민국을 떠돌며 여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대구에 한 여고생이 같은 학교 학생들의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을 한 사건이다. 이 사고를 시작으로 학교폭력의 끔찍한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뉴스나 신문은 보면 어렵지 않게 학교폭력에 관한 기사를 접할 수 있다. 정부도 그늘에 가려진 학교폭력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가해학생들의 신상을 파헤쳐 강력한 법적 처벌을 가하는 등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은 오늘날에 등장한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다만, 그 범위가 점차 좀 더 넓어지고 심해졌을 뿐이다. 단순히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폭력사건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학생

학교폭력, 사랑과 관심이 해결책

들과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발생하는 사건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학교 내에서만 아니라 학교 외에서 발생한 사건까지 포함한다. 한층 더 심화된 학교폭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일본의 왕따, 일명 '이じめ'를 아는가? 이 사건이 우리나라에 보도되어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다. 단순히 친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까지 몰고 가는 아주 잔인한 사건이다. 이러한 '이じめ 현상'이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일어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구 여고생 자살사건이 이러한 예로 들 수 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학교체벌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체벌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교내 질서가 무너지고,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많아졌다'는 내

용의 기사를 본적이 있다. 이 반항은 도가 지나칠 정도로 심각한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일마 전, 수업도중에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본 여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다. 그러자 학생은 내뽐고 내가 쓴다는데 뭐가 불만이며 갖고 있던 칼을 휘두르며 선생님을 위협하였다. 학교폭력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건이었다. 심지어 상대가 선생님이라는 사실이 더 놀라웠다.

현재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점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다소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점이다. 하나의 사례를 살펴본다면, 같은 반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받던 A학생이 있었다. 괴롭힘을 이기지 못한 A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고, 전학을 간 학교에서 A학생은

자기보다 연약한 B학생을 괴롭히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둔갑하였다. 이 사건에서 어제의 피해자가 오늘의 가해자가 되는 이상한 논리를 찾아볼 수 있다.

학교폭력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 관점과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다. 우리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앞장서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당장 학교폭력을 없애야 한다고 외치면서 정부에 항의만 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지금처럼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여론을 형성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학교와 가정에서 역시 우리 학생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어, 학교폭력이 일어난 후 처리에 급급하기보다는 미리 예방하여 학교폭력을 소멸시켜야 한다.



독자기고

원병석
사회학과 1

지금 당신이 걸치고 있는 것들을 훑어보자. 당신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많은 종류의 브랜드 상품을 지니고 있는가?

예나 지금이나 길거리에서는 소위 '메이커(Maker)'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요새 중·고등학생들을 살펴보면 많은 뉴발란스(Newbalance), 다리는 험멜(Hummel), 상체는 노스페이스(Northface)로 꾸며져 있다. 걸어 다니는 마네킹이 따로 없다.

겨울철엔 만큼 10대들은 노스페이스에서 점퍼를 많이 구입한다. 등산복 브랜드였던 상품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어째서 열광하

특정 브랜드 선호 문제 없나

는 것일까? 인터넷에 떠도는 글에 의하면 심지어 이 메이커 상품에 계급까지 존재한다고 한다. 옷의 종류에 따라 학생들에게 계급이 매겨진다는 것이다. 물론 실질적인 계급은 아닐지언정, 학교 성적의 차이만큼이나 학생들 간의 격차를 만들기에 충분한 요소이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든지 같은 나라 국민인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같은 소꿉朋友的 마네킹들은 결코 아니다. 요새 청소년들의 유행에 따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추려면 100만원이 훌쩍 넘는다고 한다. 기성세대들은 이런 청소년들의 브랜드 한줄 서기를 의아하게 여길 것이다.

다양성을 잃은 개성, 획일적인 멋 속에서

의 서열, 휘어가는 부모들의 등골, 늘어난 가는 브랜드, 과연 무엇이 이런 소비문화를 불러일으킨 것인가?

필자는 성적 일변도의 평가 시스템이 가져온 낮은 자존감과 성적으로 인한 서열화 등과 같은 외적인 틀에 갇힌 10대의 다양성이 도리어 자기들만의 틀에 갇혀 모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본다.

물론, 메이커를 구입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브랜드 상품의 구매는 소비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는 물론, 하나의 트렌드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다양한 메이커를 구입함으로써 브랜드끼리의 경쟁을 권장하고, 뒤이어 비

브랜드 상품의 개발을 자극할 수 있는 '페이스 메이커(Face Maker)'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여 물계성적인 트렌드를 좇고 비경제적인 구매가 경제시장의 비합리적인 소비시장을 조장하는 '트러블 메이커(Trouble Maker)'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올바른 구매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브랜드 상품 구매는 청소년만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10대 학생들의 기준에서 보기에 너무나도 사치스러운 소비의식이 문제되지만 20, 30대에게는 '명품'이라는 이름으로 다가갈 그들의 지갑을 열고 있다. 당신은 마네킹인가 똑부러진 고객인가? 한번쯤 생각해 볼 때이다.

동문칼럼

따뜻한 희망차 한잔 드실래요?

하늘엔 온통 찌뿌둥한 안개가 가득하기만한 학교 정문 앞. 조금은 스산한 분위기가 가득하지만 가방가득이 담긴 책 속에는 희망이라는 작은 실타래를 부여잡고 있는 눈망울이 가득하다.

사회에 나온 지 8년차이지만 학교정문과 중앙도서관을 지날 때면 어김없이 느껴지는 마음가짐이 하나가 있다. '처음처럼', '하면 된다. 안되면 되게 하라' 정말 단순하고 쉽게 시작하는 문구이지만 현실 속에서 나에게서는 그리운의 상징적 문구가 되어버렸다.

이런 마음가짐들이 사회에 나가 퇴색되어버리기 일쑤이고, 늘 바쁜 사회에서 치열하게 싸워나가다보니 우리의 배움에 대한 열의는 식어버리고 만다. 그래서인지 오늘은 더 학교와 배움이 그리운 날이 되어 버렸다.

항상 나는 그랬다. 하나에 열중하다 소인이 되어버리면 금세 다른 무언가를 찾았다. 바로 앞에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기도 한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연봉, 더 좋은 사내분위기 등.

하지만 우리에게 그보다 더욱 값진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이다. 어디가든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다는 정신이 아닌 이곳이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면 된다는 단편적인 생각들이 더욱 청년 실업을 부추기고 있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지 추운 겨울이 오면 후배들이 더욱 생각난다. 학교 앞에서 동동거리며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 간이의자에 앉아 손을 호호 불아가며 책을 놓지 못하는 사람... 우리 후배들의 취업 기회가 실업이라는 단어로 이어진다는 현실에 가슴이 미어져 왔



고승주 (행정학과 03학번)
서귀포 작은예수의집 사회복지사

다. 여러 번수들로 가득한 사회에 내던져진 대학생들이 정말 안타깝고, 그런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되어 찾아오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기회'도 좋지 않다면 지금 현실에서의 배움은 더욱 값진 기회이며, 또 다른 즐거움이 되어 찾아온다고 확신한다. 절대 지금 현실이 어려운 상황은 맞으나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기에는 우리 후배들은 대단히 멋지고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당부를 하고 싶다.

나는 항상 후배들을 위해 마음을 열어놓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끊임 없는 관심과 사랑을 주고 싶다. 또 그들의 실업을 부추기고 있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지 추운 겨울이 오면 후배들이 더욱 생각난다. 학교 앞에서 동동거리며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 간이의자에 앉아 손을 호호 불아가며 책을 놓지 못하는 사람... 우리 후배들의 취업 기회가 실업이라는 단어로 이어진다는 현실에 가슴이 미어져 왔

다. 여러 번수들로 가득한 사회에 내던져진 대학생들이 정말 안타깝고, 그런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되어 찾아오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기회'도 좋지 않다면 지금 현실에서의 배움은 더욱 값진 기회이며, 또 다른 즐거움이 되어 찾아온다고 확신한다. 절대 지금 현실이 어려운 상황은 맞으나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기에는 우리 후배들은 대단히 멋지고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당부를 하고 싶다.

나는 항상 후배들을 위해 마음을 열어놓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끊임 없는 관심과 사랑을 주고 싶다. 또 그들의 실업을 부추기고 있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지 추운 겨울이 오면 후배들이 더욱 생각난다. 학교 앞에서 동동거리며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 간이의자에 앉아 손을 호호 불아가며 책을 놓지 못하는 사람... 우리 후배들의 취업 기회가 실업이라는 단어로 이어진다는 현실에 가슴이 미어져 왔

세계 7대 자연경관, 타이틀보다 제주의 자연을 살피자



기사칼럼

김명지
(정치외교 1)

작년에 '트루맛쇼'라는 다큐멘터리가 발표돼 시민들의 이목을 끈 적이 있다. 이는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제작자와 식당 업자 간의 모종의 거래를 통해 그저 그런 맛을 내는 식당이 '맛집'으로 둔갑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발적인 다큐멘터리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기자는 생각했다. 그래도 TV에 나온 '맛집'도 실제로 맛이 없으면 언젠가 외면 받는다. 갑자기, 작년에 보았던 이 다큐멘터리를 상기시켜 준 것은 지금 제주에 불어 닥친 '세계 7대 자연경관' 논란이다.

전 세계는 제주의 환경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세계 7대 자연경관 논란 때문에 되레 제주의 타이틀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린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제주도 전체가 들쭉거렸다. 이와 같은 내용은 KBS 시사 프로그램 '추적 60분'에 방영됐다. 그리고 시민들은 '뉴세븐원더스' 재단과 제주도정에 비난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제주가 선정되면 한 해 최대 1조3000억원의 경제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설파하고 있다. 그들은 제주도가 선정돼야 하는 이유를 오로지 관광객 유치와 통한 경제효과를 가지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중요한 가치를 잊고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대외적인 수상 타이틀이 아니라 제주도의 '환경'임. 왜 이들은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길이 마케팅뿐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매달리는 것인가. 제주에 산적해있는 환경문제가 얼마나 많나. 골짜강 건설 등 개발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제주도민의 맛, 꽃차, 사람들의 무심함 때문에 배탈이 난 제주의 흙 그리고 물, 그 외에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제주도다.

겉만 번지르하고 안에 별 볼일 없는 유물이 있는 박물관에는 손님들이 오지 않는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겉은 투박하지 모르지만 속은 그 무엇을 잘 설명해주는 알맹이 하나다. 우리는 분명 잊고 있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으로 기대되는 경제효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세계는 제주를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버는 익을수록 고개를 내린다. 제주를 알린다고 시골벽처럼 하는 것보다 버는 익을수록 고개를 내리고 보듬어야 할 제주의 자연은 없는지 굵어 살펴야 할 것이다. 제주의 자연이 있기에 타이틀이 있는 것이지, 타이틀이 있기에 제주의 자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깨우쳐야 할 때다.

바로잡습니다

2011년 11월 17일자(862호) 7면 최귀일 국어교육과 명예교수의 '오빠나, 남편이나 표준 화법 마네킹의 문제점'에 대한 기고에 대해 국립국어원이 기고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했습니다.

기고 내용 중 "11월 2일 한글회관에서 국립국어원이 주관한 '표준 화법 보안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그날 있었던 '표준 화법 안(案)'의 문제점과 납득하기가 어려운 몇 가지 소감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말에

남편을 부르는 호칭을 '오빠'로 하느냐, '남편'으로 하느냐이다. 요즘 젊은이들이 남편을 '오빠'로 많이 부르니 언중의 언어 현실을 고려하여, '오빠'를 새로운 호칭어로 정하는 게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표준 화법 안(案)'이 남편을 부르는 호칭으로 '오빠'를 수용한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국어원은 '표준 화법 안(案)'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만큼, '표준 화법 안(案)'에는 남편 호칭을 '오빠'로 한 바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큰뜻 펼치시기 바랍니다

졸업기획

특별한 졸업생 3인의 '5년 후 나에게 미리 보내는 편지'

안녕, 재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들과 소나무 아래 묻었던 타임캡슐, 기억나니? 그 후로 나에게 처음 쓰는 편지... 조금은 부끄럽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를 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어.

지금의 나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어! 17년 동안 학생이었는데 이제 아니라는 사실이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시험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이 하루하루를 신나게 즐기고 있어. 오늘은 너무나 좋은 날씨에 가족들과 울레 10코스를 걷고 왔어! 용머리해안은 다시 봐도 정말 멋지더라. 내일은 친구들과 아구찜을 먹고, 모래는 발렌타인데이를 위해 초콜릿을 만들 생각이야.

이렇게 내일, 미래, 그리고 한 달 뒤쯤의 너는 뚜렷이 보이는데, 왜일까? 5년 후 너는 도무지 보이지가 않네. 서른이 되어도 세상은 호기심 천국이라며, 세계 일주를 떠나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야. 그래도 한 가지 믿을 수 있는 건, 언제나 낮은 자세로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리란 거! 누군가 너에게 뒤처진다고 말하고, 답답하다 손가락질 할지라도, 언제나 노력할 거라 믿어! 잊지 않았지? 랄프 왈도 에머슨의 '진정한 성공이란?'이라는 시.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으므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라는 구절처럼, 진정한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어디 묻혀 있는지도 모를 초등학교 때 편지처럼 지금 이 편지가 너의 기억에서 지워져 버릴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넌 잘하고 있을 거라 믿어!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2012년 2월 12일 재은 이 가.

"언제나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거운 자세로"



▶ 박재은(윤리교육과 07학번) '2011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외 다수

제환아,

'어린 왕자'의 꿈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지? 언제나 순수함과 어린이 같은 감성을 가지고 살겠다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즐거움 인생을 살기 위해 언제나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한 발짝씩 나아가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모두 다 이룰 수는 없지만, 언제나 후회 없는 오늘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누가 내 삶을 정해주지 않듯, 나의 삶은 스스로가 개척해 나간다고 생각해.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러한 일을 묵묵히 이행해 나가며, 자신만의 걸음걸이로 언제나 삶을 헤쳐 나가길 바란다. 호기심(꿈), 관찰력(정보), 집중력(몰입도), 이 세 가지는 항상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남에게 비쳐지는 맛있는 사람이 아닌, 나의 자존감으로 나 스스로에게 맛있는 사람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언제나 바라는 바이다. 항상 젊음이 넘치고, 생기가 넘쳐 즐거움이 가득한 사람으로 거듭나길 바래. 앞으로도 꿈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관을 뚜렷하게 하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보살피며,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도전하며 나아가길 바란다. 지금까지 걸어온 5년보다 앞으로의 5년이 더욱 더 빛나길 바라며,

2012년, 마스한 봄날의 기운이 느껴지는 2월 2017년의 제환이에게.

▶ 정제환

(산업디자인학부 문화초형디자인학과 08학번) 독일 국제공모전 Reddot Design Concept Award 본상 수상 외 다수

"꿈을 향해 거침없이 도전하는 미래를 꿈꿔"

"사람들과 소통하고 인생을 함께 나누는 기자 될 것"
▶ 김태연 (언론홍보학과 08학번) 현 제주소리 기자



스물아홉의 태연이에게,

처음엔 그저 막막하기만 했던 기자 생활이 이제 제법 몸에 익어 나름의 노하우도 생기고, 때론 후배들에게 길잡이 조연도 하고, 그런 너를 보고 있노라니 옛날 생각이 난다.

기억나니 태연아, 4학년 2학기, 약간 이른 직장 생활을 시작할 무렵의 네 모습. 지각할까 봐 새벽 5시부터 일어났는데 결국엔 다시 잠들어 겨우 시간 맞춰 출근하고, 회사 도착하고선 세 번 정도는 심호흡을 해야 문을 열 수 있었던 거. 인터뷰를 만나기 전에 실수하지 않을까 몇 번이나 입안에서 질문을 굴리던 모습도. 모든 것이 다 어렵고 커보이니까 해서 언제 적응하나 싶었는데 벌써 5년이나 지났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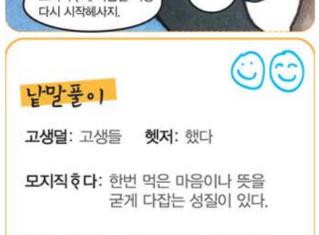
그때는 뭐가 그렇게 조금했는지 모르겠어. 어디까지 왔는지 좌표를 확인하고, 빨리 이루지 못한 것에 속상해하고, 그런데 막상 부담스러운 일이 닥치면 피하려고 숨어버리기도 하고 말이지. 그런데 '하지 않고 지나갔으면 바랐던 일' 들을 하나씩씩 해치우다 보니 실은 그 일들이 오늘의 이 모습으로 키워주었던 거 같아. 그러니 네게 다가오는 일을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맞이하자.

'하다 보면 뭐든 되겠다' 대책 없이 저지르고 보는 성격 탓에 뒤도 안 돌아보고 선택한 길의 길이 적성에 딱 맞아 떨어지다니 넌 참 행운아야. 좋아하는 일과 잘할 수 있는 일과 해야만 하는 일이 삼위일체를 이룬다는 건 아무에게나 있을 수 없는 일인 건 너도 잘 알고 있지? 게다가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것까지, 온통 감사해야 할 일들뿐이다.

사람 인(人)의 모습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마주 가면 모습이라는 거. 네 곁에 사람들이 없는 너도 없다는 거. 언제나 잊지 않길!

스물네 살의 태연이에게.

만화로 배우는 '제주어' 글 / 김순자 (국어문화원 연구원) 그림 / 고아라 특별기자 15 모지직는다



날말놀이 고생덜: 고생들 헛저: 했다 모지직는다: 한번 먹은 마음이나 뜻을 굳게 다잡는 성질이 있다. 먹영: 먹어서 시작해서: 시작해야지 '만화로 보는 제주어'는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이 코너를 아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육생 모집

JEJU NATIONAL UNIVERSITY CONTINUING EDUCATION CENTER

2012학년도 제1학기 일반교육과정 학생생 모집 안내

Table with columns for course name, semester, credit, and enrollment status. Includes sections for '직업준비 프로그램', '자격인증 프로그램', '생활스포츠 프로그램', and '문화예술 향상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for course name, semester, credit, and enrollment status. Includes sections for '건강심성 프로그램' and '인문학적교양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for course name, semester, credit, and enrollment status. Includes sections for '인문학적교양 프로그램' and '사바버 평생교육프로그램(무료)'.

2012학년도 제1학기 수강생 모집안내

- 1. 수강신청 원서 접수 및 등록기간: 2012. 2. 1(수) - 2. 27(월)
가. 인터넷 접수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psg.jju.ac.kr)에 접속후 회원가입후 신청
나. 방문접수: - 시간: 09:00~18:00 - 장소: 평생교육원 행정실
다. 전화접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번, 휴대폰, 수강희망 강좌 등을 접수
라. 팩스접수: (064)702-5508로 전송 후 접수여부 전화 확인 요망
2. 교육기간: 2012. 3. 2(금) - 6. 30(토), 15주
3. 학습비 납부안내
▶ 등록방법: 계좌 입금
- 계좌번호: 954-01-024748(은행: 농협, 예금주: 제주대학교)
100-027-462388(은행: 신한은행, 예금주: 제주대학교)
- 입금자명은 '성명 후대문자 4글자'로 '홍길동1234' 성명으로 입금되며, 부득이 타명의로 입금할 시에는 행정실로 전화 요망
* 기간 대상자는 학습비 전액 수업료 차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감면여부 반한
4. 학습비 감면
가. 10% 감면: 본교 교직원(가족)도, 재직, 제주대학교보정 직원, 4개 학기 이상 연속 수강생, 한 학기당 3개 강좌 이상 동시 수강생
나. 20% 감면: 본교 교직원(가족)도, 재직, 본교 재학생, 시간강사, 평생교육원 강사, 본교 퇴직자, 자드특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한하여 복지카드 소지자
다. 감면신청서 제출 시유: 감면신청서(대학 소정 양식), 감면신청서용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재학생명서, 퇴직명서, 재직증서, 자드특수 증명서 등)
* 학습비 감면은 개강후 한달 이내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복감면 불가
5. 생활방법: 원서접수 후 등록(학습비 입금) 순으로 진행함.
6. 학습비: 교육과정별 학습비 참조
7. 기타 유의사항
가. 매 강좌 교육시간 2/30시간(수업식차에는 총명도의 수업종류 수)
나. 자드특수 학생은 90시간 이수자는 한국국립대학교평생교육원(학비) 또는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자드특수 학생 장학금 신청 가능
다. 수강생 등록일(매)과 교육강좌가 개설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비 전액 환불
마. 강의비 이외의 교재비, 재료비, 실습비, 자드특수 증명서 등 별도 납부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참조 및 행정실 ☎(064)754-2704-5로 문의 바람.
8. 문의처: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행정실
TEL: (064) 754-2704-5, FAX: (064)702-5508, 홈페이지 (http://psg.jju.ac.kr)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